여성문학(사)의 '역사/문화' 공간 생성과 '디지털' 창의-생산을 위한 시론*

- 상상지리지 설계와 문화생산을 위한 전제・조건・방법**

최기숙***

차례

1. 여성문학(사)의 결여와 박탈
2. '매개된' 여성-경험의 성찰: 문자・젠더・신분
   2.1. [한계-조건]과 [문자-매개]의 기억망
   2.2. 기록성・구술성・여성 커뮤니티
3. 지워진 길 찾기: 투명하게 존재하는 흔적, 그림자 읽기
   3.1. 여성 지식/교양의 습득 경로
   3.2. 여성 지식/교양의 재현 방식
4. 여성문학(사)를 위한 문화지리지 설계
   4.1. 여성문화의 확장적 인식과 성찰적 재구축
   4.2. 수용자의 [해석/반응]의 [창의-생산-정보화] 가공
5. 젠더와 트랜스-히스토리: 시공간을 연결하며 생성하는 사이버공간의 문화생산성

〈국문초록〉

이 논문은 문자 중심의 여성문학(사) 이해의 한계를 논증하는 방식으로 '비-문자' 감성 요소에 대한 문화사적 재현의 중요성과 행위자의 경험, 실천, 구술 차원을 고려한 디지털 차원에서의 여성문학/문화 공간을 설계하기 위한 '창의-생산'적 가능성을 제안했다. 이는 조선시대 여성의 문화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1021896)

** 이 논문은 한국여성문학학회 학술대회 <지역・기념・여성: 문화지리와 젠더>(2017.5.20.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311호)의 발표문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한 것임. 토론을 맡아 주신 김남이 교수님과 조언을 해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를 전한다.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부교수

지리를 디지털 차원에서 재구성하는 작업이 문자화된 자료를 고정적으로 재생산하는 디지털-재현의 방식을 넘어서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때 디지털 수용자가 대상 자료를 이해하는 방식과 관점 자체를 인문적 자원으로 포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했다. 이 논문은 그 가능성에 대해 문자화된 여성문화/문학사의 기록 이면에 잠재되거나 온축된, 여성의 가치와 실천성, 문자로는 명시할 수 없었지만 실제로 존재했던 문자생활과 문학 행위, 인문적으로 가치 있는 윤리적이고 감성적인 실천을 독해하는 방식으로부터 찾아보고자 했다.

문자화된 조선시대 여성의 생애사는 사대부, 남성, 지식인, 한자, 제도적 '문'을 경유한 자료이므로, 여성의 주체적 발화나 재현의 수사, 성찰성의 내용은 지워지거나 감추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복원하는 작업은 '투명하게 존재하는' 그림자 읽기의 작업과 흡사하다.

조선시대에 공식적으로 문자생활을 권유받지 못한 여성 문화를 이해하고, 그 가치와 실재를 디지털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박람강기'라는 남성적 방식과는 달리, '박문강기'라는 구술과 청취의 화행성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며, 신분제의 하위 기단을 차지하던 여종과 유모도 포함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여성을 바라보는 남성 중심적 시선을 확대재생산하는 방식을 넘어서, 수용자가 자료를 통해 역사와 문화를 성찰적으로 사유하고 비평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창의-생산적' 방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현대의 수용자가 조선시대 여성 문화의 존재 방식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문자화'된 기록이 갖는 한계와 작동 원칙에 대한 성찰적이고 비평적이며 상상적인 이해를 확장할 수 있는 디지털 설계에 대한 인문공학적 구현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안했다.

핵심어 : 여성문학, 여성문학사, 디지털 공간, 창의-생산, 상상지리지, 젠더, 교양, 지성, 감성, 데이터베이스, 인문공학

1. 여성문학(사)의 결여와 박탈

부인의 덕은 대개 밖에 알려지지 않게 마련인데,
요절한 사람은 더욱 기록이 없는 것 같다.
(박필주[朴弼周], 「孺人李氏墓誌銘」, 『黎湖集』)

이 연구는 "한국여성문학(사)에 여성의 자리는 존재하는가", "여성에게 사회가 있는가", "여성의 환경은 어떤 장소이며, 어떠한 공간인가"라는 질문에 역사·문화적으로 응답하기 위해, 조선시대에 한문으로 기록된 여성 관련 생애사 장르, 즉 비지류(碑誌類), 애제문(哀祭文), 전장류(傳狀類)를 대상으로[1] 여성의 역사/문화적 공간의 생산과 현대적 재구축 과정에 대한 디지털 설계의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전 문헌 자료를 공공화하는 방안에는 일차적으로 자료의 발굴과 수집이 선행되어야 하며, 번역이 필요한 경우, 출간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이를 디지털에 공개함으로써 수용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국경이 없이 자료를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고전 자료의 디지털화는 원문 자료의 입력과 번역문을 제공하는 차원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하고 해석하는 수용자의 관점은 자료화되지 않는다. 단적으로 말해, 고전문헌자료의 디지털화는 철저하게 자료중심 설계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 글에서는 원천 자료와 번역 자료가 중요하다는 선행 작업으로부터

1) 연구 대상 자료로서는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1~8권(황수연 외 역, 보고사, 2010)과 한국고전종합 DB사이트를 대상으로 삼는다. 원문을 인용할 경우 이 사이트를 활용했으며, 번역문은 번역본을 참조하되, 필자가 부분적으로 재번역하거나 윤문하여 인용했음을 밝힌다. 본문에 인용할 때 '-' 오른쪽 숫자는 텍스트의 창작 시기를, 왼쪽 숫자는 번역본 권수를 의미하며 ':' 옆의 숫자는 인용문의 첫 쪽수를 뜻한다. 예컨대 '18-3:110'은 18세기 번역집 3권의 110쪽이라는 뜻이다. 18세기는 본 연구의 출발점이며, 이후 이전(17세기)과 이후(19세기)를 포괄함으로써 여성'문학/문화'사 서술의 세부적 전개가 선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의 인식에 공감하면서, 여기서 나아가 문헌 자료 중심으로 고전문학/문화를 이해할 때 초래하는 문화와 역사 인식의 한계나 제한점을 논의하고, 수용자의 사고, 상상, 인식, 이해를 동시적으로 자료화함으로써, 상호적이고 소통적인 디지털 자료 구축의 '창의-생산적'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아이디어 설계의 가능성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전 자료를 매개로 삼아 인문적 대화와 상상력의 지평을 확대하고 공유하는 방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인문공학의 출범에 대해 사유하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몇 가지 전제에 대한 인식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한국여성문학(사)의 현재성, 장소성에 대한 인식과 설계의 전제 조건에 대한 분석이다. 조선시대 문학 자료 중에 현재 남아 있는 여성생애사에 관련된 것의 대부분이 사대부 남성 문인에 의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여성 자료는 '문자・젠더・신분'적으로 '매개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자화된 기록과 '기억-매개'의 총체가 '상층, 남성, 가족'의 관계망 속에서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여성에 관한 자료에는 '상층-남성'이라는 관점이 매개되어 있고 여성의 '당사자성'이 배제되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문자화된 기록 행위 자체가 구술, 기억, 번역의 복합물이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게나마 남아 있는 여성 자신의 글쓰기 기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한글 소설류에 남아 있는 여성 관련 자료를 '비교적' 차원에서 참조해야 한다.[2)]

둘째, 조선시대를 대상으로 한 여성문학(사)의 '역사/문화'적 공간 생성을 위해서는 '투명하게 존재하는 길/영역의 재구'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조선시대 여성의 문학사적/문화사적 지리는 역사적으로는 '잃어버린 길'이지만, 그 기원을 추적해 보면 애초에 주어져 있지 않은 길, 따라서 '박탈된 길'에 가깝다. 그것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존재

2) 이 작업은 데이터 수집과 분석 차원에서 거시적 규모를 요청하므로, 이 글에서는 사대부 남성이 한문으로 기록한 자료에 한정해 논하기로 한다.

했으나 '의미화되지 않은 것들'이며, 이에 따라 '가치화되지 않은 것들'에 해당된다. 그 결과 여성문학/문화사는 기록으로부터 누락되었으며, 희미하게 역사화되었고, 엄밀히 말하자면 역사화의 기회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 여성의 문화지리를 재구하는 작업이 '투명하게 존재하는 길/영역 찾기'라는 개념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상기하는 것으로 문제의 출발점을 삼는다. 여성의 문화지리는 '있는 것'을 정리하거나 재구하는 작업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존재했던 것'에 대한 인식적 공감으로부터 출발하며, 이를 재구하는 작업에는 적극적인 상상력과 해석력이 요청된다. 이 작업을 상상지리지의 설계로 명명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는 여성의 삶과 문학에 대한 흔적의 기록을 깊이 있게 읽거나, '투명하게 전제된' 여성적 삶, 존재의 흔적을 발굴하고 추적함으로써, 때로는 상층/남성/지식층의 기록적 유물의 바닥에 드리워진 '그림자 읽기'와 같은 행위 해석과 추적 작업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로부터 출발한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의 경험을 해석하고 소통하며 성찰하는 디지털 공간 구성의 개념 틀을 제안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는 현대의 독자/수용자로 하여금 단지 조선시대 여성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요청할 뿐만 아니라, 현대적 관점에서 인류, 인간, 문명, 문화, 역사에 대한 상상력을 전면적으로 발휘하고 이에 대해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를 통해 역사화된 문화/문학 자료를 경험하는 수용자의 해석과 반응 자체를 데이터화함으로써, 창의-생산적 디지털 공간의 형성 가능성을 타진하는 계기로 삼는 아이디어를 제안할 것이다.

그간 여성문학의 공간 분석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는데, 대개는 개별 텍스트 중심의 공간의 의미 분석에 집중되거나 특정 작품에 대한 현장론적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3] 한국고전문학을 대상으로 여성

3)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조혜란, 「17세기 조선의 규방 현실에 대한 보고」, 『한국고전연구』 9, 한국고전연구학회, 2003; 탁원정, 「가정소설에 나타난

의 역사/문화 공간에 대한 연구 분석의 아이디어를 집성해 '공간 설계'라는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사유하거나, 수용자의 창의적 반응과 해석 가능성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은 적어도 국내에서는 수행된 바 없다.[4)]

이 글에서는 여성문학(사)의 '역사/문화'적 공간 생성과 '디지털' 창의-생산을 위한 시론을 구성하기 위해, 여성생애사 자료 구성에 매개된 남성/사대부/한문이라는 젠더/신분/문자를 성찰적으로 인식하고, 문자 중심의 여성문화지리지 구성이 갖는 한계를 통해 역설적으로 문학/문화적 경계를 확장하는 방법론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첫째, 비-문자, 감성, 흔적, 행위를 여성문학/문화지리지 구성의 매개로 제안한다.

둘째, 기록된 결과가 아니라 기록에 함축된 경험과 인식을 어떻게 문화지도에 담을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 설계에 필요한 사안들을 논의한다.

셋째, 여성문화지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실제적 논의를 위해 문자화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어떻게 해석과 상상하며, 때로

'집' 연구」, 『한국고전연구』 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류경자, 「남해군 전승민요의 현장론적 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2010; 최기숙, 「17세기 고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유랑과 축출, 그리고 귀환의 서사」, 『고전문학연구』 38, 한국고전문학회, 2010; 지연숙, 「고전소설 공간의 상호텍스트성: 황릉묘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5,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1; 유목화, 「남원 춘향제 연구」, 전남대 박사논문, 2012; 이지영, 「<운영전> 창작의 문학적 배경과 연원」, 『국문학연구』 26, 서울대 국문학회, 2012; 김선현, 「<숙영낭자전>에 나타난 여성 해방 공간, 옥연동」, 『고전문학과 교육』 21,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1; 김문희,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의 공간 묘사와 공간 인식」, 『한국어문학연구』 62, 동악어문학회, 2014; 김현화, 「홍계월전의 여성영웅 공간 양상과 문학적 의미, 『한민족어문학』 70, 한민족어문학회, 2015; 김경숙, 「여성 한시문에 나타난 '공간'으로서의 '집' 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6 등.

4) 해외 사례가 있는지도 조사된 바 없으나, 김현(「디지털 인문학과 고문헌 자료 연구」, 『열강고전연구』 50, 열상고전연구회, 2016, 16~17쪽)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 작가 36만명을 대상으로 하버드대와 베이징대 연구자들이 혈연·지연·학연,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맵핑 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고 한다. 이는 지식의 정보 처리와 관련된 연구로서, 수용자의 창의 생산에 취지를 둔 본 연구와는 디지털 설계 면에서 근원적인 차이가 있다.

는 이면의 역사적 문맥을 독해할 것인가를 논하는 방식을 택한다.

넷째, 이를 통해 젠더와 트랜스-히스토리, 즉 시공간을 연결하며 생성하는 사이버공간의 문화생산성을 제고하는 여성문화 디지털 공간 구축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이때 연구자는 수용자에게 같은 지식을 반복적으로, 재현적으로 경험하도록 구조화된, 확고한 디지털 수신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의 창의적 반응을 유도하고 그 경험 자체를 다시 디지털 자료로 재구축하는 '창의-생산성' 제고의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인문 지식의 대중화라는 관념이 아니라, 대중적 집단 창의의 정보화 및 지식 재구성이라는 관점이 매개될 것이다. 단, 웹 사이트 구축에 대한 제안은 현실 가능성이나 전체적인 체계성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아이디어 실험과 제안의 풍부한 가능성을 타진해보려는 데 집중할 것이다.[5]

2. '매개된' 여성-경험의 성찰: 문자 · 젠더 · 신분

> "세상에서 여인의 법도는 고을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진실로 그 집 마루에 올라보지 않으면 누가 그 깊은 법도를 엿볼 수 있겠습니까(凡世閨則, 不克逾國. 苟非升堂, 孰窺幽則.)." (李健命, 「祭外姑淑夫人延安李氏文」『寒圃齋集』 7:203)

'문자'로 '기록'된 문서를 통해 전근대 시기 여성의 생애사를 공간적으

5) 최근에 필자는 '인문학의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아이디어 설계에 대한 구체화 가능성이나 현실성을 고려하는 것은 인문학자의 몫이라기보다는 기술공학자의 문제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또한 이 글은 여성문화지리의 디지털 구축의 현실화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상정할 때의 인문학적 가능성과 상상력의 극대화 및 수렴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가능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 방법론적 전제 및 시론을 제안하려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이 또한 인문학적 사고 설계이자 형식 실험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인문학 분야에서 아이디어와 상상력 설계에 대한 '포스터 발표'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바이다.

로 재구성한다면, 극단적인 경우 [어머니 품-친정과 시가의 규방-무덤]이라는 세 단계 설정만으로도 충분할 정도로, 여성 관련 기록은 제한적이다. 남녀를 막론하고 대개의 생애사 기록이 대상자의 사망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한 기록은 '관'을 덮으며, 또는 '부음'과 더불어 이루어진다. 여성에 대해 남은 기록이 오직 '제문' 밖에 없을 때, 여성의 공간에 대해 기록할 실체는 오직 '무덤' 뿐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정황은 여성문학/문화사의 지리지[6]를 구축하는 것의 협소함, 한정성, 나아가 불가능이라는 곤경으로 수렴된다기보다는 지리지 구축에 따른 '사유의 전제' 또는 고착된 발상에 대한 재성찰을 요청하게 한다.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 여성에 대한 기록이 '남성'과 '한자'를 매개로 기술되었다는 점, 이조차 상층 남성과 가족 관계로 연결된 상층 여성이라는 신분적 제한성이 관여되었음에 주목한다. 이에 대해, 여성문화지리의 구축 조건으로서의 문자-매개의 기억망이라는 관점을 고려하되, 문자를 선회하는 구술성과 행위성을 어떻게 여성문화지리지의 구축에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를 사유하는 방향으로 고찰해 볼 것이다.

2.1. [한계-조건]과 [문자-매개]의 기억망

사대부 남성이 한문으로 기록된 자료를 중심으로 여성문화지리를 구축하려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기록성이 갖는 역사적 맥락성이다. 구체적 이해를 위해 사례를 통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조선후기 문인으로 숙종의 장인이기도 했던 김주신(金柱臣. 1661~1721)은 한홍중에게 시집간 여동생 유인 김씨가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자, 누이를 위해 묘지를 써서 하나는 후손에게 전하고, 다른 하나는 한홍중(누이의 남편)에게 건네 보관하려고 했다. 그러나 여동생을 잃은 슬픔

6) 이 글에서는 여성의 문화지리지 설계에 대해, 고전 텍스트에 재현된 여성의 존재와 생애를 둘러싼 문화사적 행위와 공간의 재구성에 대한 일련의 디지털 자료 구축을 전제로 논의한다.

이 지나쳐 스스로 죽음을 기약하다가 일 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누이를 위한 묘지문을 쓰게 되었다. 그는 유종원이 누이에 대해 쓴 묘지명에서 시집가기 전의 누이에 대해서는 자신이 더 잘 알고, 혼인 이후에는 그 남편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쓴 것을 인용하면서, 누이가 시집가기 전인 15세 이전이나 이후의 삶에 대해 남편과 오라비(자기 자신)는 모두 다 잘 알 수 있을 정도로 죽은 누이의 품성이 변함없었다고 강조했다.[7]

이 사례는 사망한 유인 김씨의 생애 기록이 살아있는 남성 가족, 구체적으로는 오라비와 남편에게 위임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여성의 삶을 역사화하는 과정은 오직 [상층-남성-가족-문자]에 매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남은 여성은 항상 사회적 평판의 대상자로 조명되고 있었음이 발견된다.

> ① 처음 시집에 이르자 그 시아버지 보은공께서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며느리는 진솔하고 겉치레하지 않고 쓸 데 없는 말을 하지 않으니 사랑스럽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시할아버지 청송공을 가장 오래 섬겼다. 또 (청송공이) 예쁘게 보고 이렇기 말했다. "이 며느리는 음식을 잘 하고 늙은이를 보살피는 데 충심을 다한다." 시할머니와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일처리를 똑 부러지게 하는 것을 칭찬했다. 남을 부림에도 뜻이 분명했다. 동서들을 대할 때에도 진심으로 하여 혹시 맞지 않는 점이 있더라도 조금이라도 속에 담아두지 않았다. (동서들이)다 감복하여 "우리 형님의 마음 씀씀이가 정결하고 고상하다."라고 했다(始至, 其舅報恩公喜山, "吾婦眞率不外餘, 閑澹可愛." 舅沒, 事王舅靑松公最久. 又嘉之曰: "此婦善治飮食, 忠於養老." 其王姑與姑, 亦稱其論事緊當. 令人意豁, 待諸娣有眞意. 雖時或枘鑿而不少存諸中. 皆服曰: "吾兄心事灑落.") (어유봉[魚有鳳] 「孺人黃氏墓誌銘」『杞園集』 4:21)
>
> ② 반소가 쓴 여성 교육서에 부녀자의 행실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했고 그 항목은 열 가지가 넘는다. 이 항목으로 너를 보니, 오직 술과 음식을 깨끗이 하고 손님을 받드는 이 한 가지 일만은 특별히 오로지 맡기지 않아도 다 해냈고, 그 나머지도 어긋난 것은 혹 볼 수 없었다(班昭女訓, 婦行有四, 而其目則十數. 以是而觀於汝, 唯有潔齊酒食, 以奉賓客一事, 特不及專任而盡試焉耳, 其餘則未或見有違於玆訓者.). (유척기[兪拓基], 「祭冢婦李氏文」『知守齋集』 3:98)

7) 김주신, 「亡妹墓誌」『壽谷集』 7:72.

대개 여성의 삶을 기록한 이는 가족과 친지, 또는 이들의 청탁을 받은 남성-가족의 지인이기 때문에, 그 기록은 대체로 '칭찬할 만한 내역'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여성이 언제나 가족과 지친, 지역 사회의 평판 속에 존재했으며, 기록을 통해 그것이 확정되는 방식 자체가 여성의 현실적 삶을 보이지 않게 규제하는 규범적 틀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물론 모든 '생애사 기록'은 사회적, 역사적 판단이라는 일정한 기준이 작동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여기에는 당연히 남성 또한 예외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적 평판에 다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여성을 칭찬하거나 긍정하는 경우에조차 이것이 남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조율되는 정황이 발견되거나, 수행성의 맥락에서 보자면 남성이 기준점으로 작동하는 지점이 매개되어 있음이 파악되기 때문이다. 여성은 규범에 따라 삶을 조율하고 정향하며, 이를 평가하고 기록하는 남성 또한 규범이라는 렌즈로 여성의 삶을 읽어내는(②) '순환성'이 매개되는 것이다.

③ 안인은 여러 번 출산한 후로 항상 병치레를 잘 했으나 기운이 아주 튼튼하고 성격 또한 고통을 잘 감내하여 아주 위독하게 되지 않으면 하루도 편히 누운 적이 없었다. 6월 그믐에 갑자기 더위를 먹어 침과 석편을 다 놓았는데 여러 번 까무러쳤다가 깨어나더니 이틀이 지난 저녁에 마침내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다(安人多産以來, 固常善病, 而元氣沉實, 性又耐辛, 非至甚篤, 則未嘗一日委卧. 六月之晦, 猝中暑喝, 鍼石並下, 屢窒而甦, 越二日夕, 竟至不起.. (이간[李柬],「亡室安人尹氏行狀」『巍巖遺稿』4:330)

④ 기묘년(1699)에 임신을 하였는데 겨울 추위에 조섭을 잘하지 못해 해수병(咳嗽病)에 걸려 몹시 고생했다. 이듬해 1월에 해산한 지 겨우 20일 만에 목욕을 잘못하여 병이 더욱 위독해졌다. 기혈이 허해져서 열이 오른 것인데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오로지 열 내리는 약만 쓰고 있다가 결국은 3월 6일에 죽었다. 아아! 이것이 재난을 면하지 못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죽기 하루 전날, 병은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갓난아이를 시부모가 계신 곳에 보내기로 했다(己卯歲, 有身而冬寒, 不善調護, 得咳嗽病甚苦. 明年正月, 解娩僅二十日, 誤梳洗, 疾遂劇. 氣血大虛以發熱而莫之察, 一向投以寒劑, 遂以三月初六日不救. 嗚呼! 此何以異於不免水火者哉! 死前一日, 以其疾不可爲, 將移送新生兒于其舅母所.). (김창집[金昌緝],「亡女行狀」『圃陰集』7:161)

위의 사례를 통해서는 이간의 아내인 윤씨가 여성이 산후증으로 사망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③). 기록에 따르면 김창집의 딸(④)과 김창협의 셋째 딸 김운(1679.12.17.~1700.7.17.)도 산후병으로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8] 이관명의 며느리는 산후병을 얻어 21세에, 이건명의 아내도 딸을 낳고 바로 병들어 23세에 사망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9]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기록이 주로 사대부 남성의 손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산후증으로 사망한 기록은 있지만, 임신과 출산이 수반하는 정서적, 심리적, 육체적 변화와 갈등, 고통과 상처 등에 대한 한문 기록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고소설에서는 흔히 여성의 출산 과정을 신비롭게 미화하거나 선녀가 나타나 해산을 도와 '향기롭고 상서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많다.[10] 이는 여성의 출산을 고통스럽다거나 배려와 도움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인식을 간과하게 하여, 여성에 대한 사회적 도움과 배려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자료사적 정황을 의식한 가운데, 전해지는 자료로 여성의 문화지리를 디지털 웹 사이트로 구축할 경우, 여기에 매개되는 역사적 조건과 전제에 대해 사유해본다면, 여성-망자(대개의 글은 여성의 사후에 작성된다)에 '대한' '상층/남성 중심적 시각'이 관여됨을 알 수 있고, 그 자체가 사이트를 구축의 전제로 '자연화'[11]될 수 있음이 파악된다. 즉, 여성

8) 김창집, 「祭姪女吳氏婦文」『圃陰集』 7:163.

9) 이관명(李觀命), 「祭子婦安東金氏文」『屛山集』 7:177.; 이건명(李健命), 「亡室贈貞夫人光州金氏墓誌銘」『寒圃齋集』 7:200.

10) 물론 <심청전>처럼 심청을 낳고 산후별증으로 사망한 곽씨 부인의 사례도 등장하지만, 살아남은 심봉사 부녀의 간고한 삶에 방점이 찍히기 때문에, 곽씨 부인에 대한 동정의 감정선조차 '아내를 잃은 맹인 남편의 불행'으로 이월되는 부분이 강하다. 임신에 따른 여성의 신체변화에 대한 서술은 '바리데기' 무가 등 구술 서사물에서 발견된다(이에 대한 논의는 Choe, Key-sook, *Classic Korean Tales with Commentaries*, translated by Lee Sun-hee, Allison Blodgett and Ko Yu-jin, Hollym, 2018, pp.96~97.). 이는 문자화된 문학과 구술 문학을 동시에 살펴야 하는 이유를 시사한다.

11) '자연화'는 Roland Barthes의 용어다. 신화는 의사소통의 체계이자 메시지이며, 이 메시지를 통해 대상이나 개념이 아닌 의미 작용의 형식 자체가 된다. 자신 안에서

은 스스로의 생각, 판단, 느낌, 의식을 전달하고 후대 수용자와 소통할 기회로부터 배제될 것이며, [남성-가족-문자-신분]이라는 역사적 시선을 통과한 '매개된 기록'만을 접속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출산'과 같이 여성이 육체적으로 경험하고, 정서적, 심리적으로 감지하는 내면은 누락되므로, 여성 행위자의 당사자성, 육체적 감각, 감성의 문제를 '복원'하는 디지털 사이트 구성에 대한 설계도 필요하다.

2.2. 기록성 • 구술성 • 여성 커뮤니티

여성의 문화지리를 구축할 때, '상층/남성/가족'이라는 매개를 경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그로부터 연유하는 한계를 최대한 극복하여 자료를 구축하고 디지털 공간을 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록성, 구술성, 여성 커뮤니티라는 세 가지 차원에 주목한다.

첫째, 문자화된 기록을 통해 여성문화지리를 구축할 경우, 대개는 여성이 문자화된 글 안에서 '대상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⑤ "당신은 품성이 곧고 바르며 청렴결백하고, 효성과 우애가 있고 너그러웠지요. 그런 성품으로 내 부모를 잘 섬겨 사랑을 받았고, 내 형제에게 우애로 대하여 기쁘게 하였으며, 내 못난 점을 이끌어주고 부족해 미치지 못하는 점을 채워주었소. 당신은 거친 밥도 실컷 먹지 못하면서 내 허기를 채워주었고, 당신은 제대로 된 치마저고리가 없으면서 내게는 때에 맞게 옷을 지어 주었소. 내 몸을 보살펴 주느라 깊이 병들었다가도 다시 일어나 내 뜻을 받들어 맞춰주었고, 고생고생하면서도 유감이 없었으니 아내 된 도리를 당신보다 더 잘 지킨 사람은 없을 것이오(君稟性貞正廉潔, 孝友寬厚. 以事吾親得其愛, 以友吾兄弟致其悅, 以導吾拙踈, 補其所不逮. 糟糠不厭而適吾饑飽, 衣裳不完而時吾寒暑. 扶護吾身, 沉痼而復起, 順適吾志, 尼窮而無悔, 爲婦之道, 無是過矣.") (이만부[李萬敷], 「祭亡室柳氏文」『息山集』 7:211)

일종의 편재성을 생산하는 신화는 사람들에 의해 기호학적인 체계가 아니라 귀납적인 체계로 수용되는 방식으로 자연화된다. 자연화는 기호학적 체계를 사실적 체계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Roland Barthes, 정현 역, 『신화론』, 현대미학사, 1995, 1~246쪽.

위는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고 살아서의 치적을 기린 이만부의 제문이다. 이 텍스트를 대상으로 후대의 문학적/문화적/역사적 체험을 '가치론'의 입장에서 논할 때, 이것을 '문학'으로 간주한다면, 가치화의 대상은 자연스럽게 고인이 살았을 때의 행실을 곡진하게 기록하고 후대 독자로 하여금 감성적 체험을 가능하게 한 이만부의 '글쓰기' 방식과 미학적 특성에 집중하게 된다. 그럴 경우, 그가 문자를 매개로 '기리고 있는' 아내의 삶의 행적은 단지 문학적 대상(오브제)에 불과한 것으로 자리매김되어, 자동적으로 문화적 '가치화'의 대상으로서는 배제된다. 문학 장르와 텍스트의 형성 과정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 ⑥ "선비는 마땅히 언행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문예는 말단이다(士當以言行爲本, 文藝末也.)." (김주신, 「先妣行狀」, 『壽谷集』 7:107)

위 인용(⑥)은 김주신이 쓴 모친 행장에서 인용한 문장이다. 발화자는 유인 조씨이고, 청자는 필자인 김주신을 포함한 자손이다. 어머니인 여성이 아들인 남성에게 '문예보다 언행'이 근본이라고 가르친 것은 사장(詞章)보다는 언행, 즉 일상적 실천과 태도가 인간됨을 실현하는 중요한 요체임을 강조한 사례다. 말하자면 여성이 발언한 실천 철학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황은 자연스럽게 여성의 문화지리를 재구축하기 위해서는 기록된 문자 텍스트를 단순히 '재현'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대신, 그것이 작동하는 화행적 상황과 담론 구조를 읽어내고, 그에 담긴 여성의 행위와 실천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환기한다.[12]

---

12) 여성문학사에서 여성 행위에 주목해야 하는 의미에 대한 상세한 논증은 최기숙, 「조선후기 여성의 '문화/문학'적 실천(讀·書·行)을 통한 한국 '고전/문학' 연구의 재성찰」, 『국어국문학』 176, 국어국문학회, 2016, 115~149쪽. 이것을 어떻게 웹 공간에 디지털화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뒤의 기술적 문제로 접근할 부분이다. 물론 이 경우, 텍스트의 표피적 맥락, 심층적 맥락이라는 항목 지정도 필요하고, 젠더적 관점에 따라 텍스트를 읽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 자체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발달된 인터넷 게임의 법칙을 고려한다면, 이 글에서

둘째, 여성문화지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문자-기록을 넘어선 구술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대적 구술성은 남성 필자가 한문으로 기록한 문서 양식 안에 포함되어 있다.[13] 특히 조선시대 여성은 문자 생활을 억압받거나, 실제로 하고 있더라도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였고, 여성의 삶을 드러내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문자화된 양식을 통해 여성이 실제로 어떠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교섭했는지의 실제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일상생활에서 여성이 다른 여성에 대해 갖는 의견과 이해, 느낌과 평가를 한문 기록 자료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14]

다음의 사례는 여성의 발화가 실제 삶에 영향을 미쳤던 정황 및 여성적 커뮤니티의 실상을 이해하게 하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⑦ 얼마 뒤에 내가 여강으로 누이를 보러 갔는데 흐느껴 울며 지난 일을 말하다가 당신이 미처 다하지 못했다는 말을 대략 듣게 되었고, 나도 전날 밤의 꿈을 이야기하다가 저도 모르게 마주하고 함께 애통해 하였소. 아아! 당신은 어찌하여 내게 말하지 않고 누이에게 말하였으며, 생전에 털어놓지 않고 죽은 뒤에 꿈에서 안타깝게 밝히고, 누이를 통해 알게 하여 나로 하여금 더욱 마음만 괴롭고 후회막급하게 하는 거요? 그러나 이 때문에 당신이 아득하고 깊게 무지한 데 이르지 않았음이 증명되었으니, 오히려 의지하여 그리워할 곳이 있는 셈이구려(未久, 余省姊氏于驪江, 欷歔道故, 槩聞君未了之語, 余又說前夜之夢, 不覺相對一慟. 嗚呼! 君何不告我, 而只告姊氏, 不洩於生前, 而耿耿於死後, 猶靳於夢中, 而憑姊氏而告余, 使余只益疚懷, 而悔莫逮及耶! 然此可驗其不至於杳冥無知, 而猶有所憑依而想像者耶.). (이해조[李海朝], 「祭亡室小祥文」『鳴巖集』 7:46)

상정하고 있는, 다소 복잡해 보이는 디지털 설계가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게 된다.

13) 한문 글쓰기에 한글 글쓰기가 번역되거나 요약되어 있고, 때로는 구술 전언이 기록된 사례는 한문이나 한글 표기, 즉 문자의 표층적 단일성 내부에 복합문자체계가 혼융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논증 작업은 최기숙, 「18세기 여성 대상 애제문과 비지문을 통해 본 한문의 '문자적·구술적' 포용성: '한문/언문'과 '말/글'의 중첩과 포용의 맥락」, 『고전문학연구』 48, 한국고전문학회, 2015, 259~289쪽

14) 이와 달리 한글 소설 분야에서는 여성의 여성에 대한 이해, 평가, 느낌, 감각 등이 비교적 자유롭게 드러나 있다. 이는 소설 분석의 새로운 방향을 시사하는 관점이다.

이해조는 아내가 생전에 자신에게 못다 한 말을 여동생에게 전한 바 있음을 아내의 사후에 알게 되었다. 누이와 아내 사이에 오간 대화가 서술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부부 사이에 다하지 못한 말을 여성 가족 사이에서 토로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그 부분은 여전히 상상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대화에 참여한 두 여성 모두 자신의 경험을 '문자화'하고 '역사화'하는 기회 자체로부터 배제되었기 때문이다(엄밀히 말하면 이는 '박탈'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황은 여성 사이에 가능했던 관계, 대화 상황, 내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상정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선적으로는 '여성 커뮤니티'에 대한 디지털 구축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제기이다. 이때 괄호로 묶여 비어 있는 공간 자체를 디지털화하고 이에 대한 수용자의 상상과 해석 활동을 허용하는 방식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괄호로 묶인 빈 공간(여성들 사이에 오고간 대화)에 유사사례를 배치하여 여성 커뮤니티의 상상적 확장성을 도모하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수용자의 창발적인 역사적 상상력과 해석력이다.[15]

15) 이 글은 남아 있는 자료를 디지털 공간에 옮겨놓는 방식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아닌, 역사적 텍스트와 현대 수용자와의 상호 대화를 도모하고, 그 자체를 다시 데이터화하는 복합적 구조를 상정하고 있다. 물론 전자의 방식도 연구의 편의성, 역사 자료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 그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영역에서 데이터베이스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여기에 '여성'과 '역사'라는 '조건'이 매개되는 부분에 대한 사유 설계를 어떻게 접속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논의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조차 간단치는 않겠으나, '있는' 자료의 수집과 배치의 문제라는 점에서는 여타의 역사자료 데이터베이스화의 작업과 근본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본다. 필자는 현재 인문학 자료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 기존 자료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재생 과정으로 환치되는 기술상의 매너리즘을 넘는 도약의 단계에 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소 '무모해 보이는' 발상과 사고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실험의 차원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론 차원의 제안을 하고자 했다.

이 글에서 제안하는 수용자 반응의 데이터화에 대해, 수용자의 상상적이고 해석적 반응의 '질'을 문제 삼아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향후 인터랙티브 커

셋째, 여성 커뮤니티를 고려할 경우, 신분적 동일성을 넘어선 대화와 교섭 행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16] 단적인 사례를 들자면, 사대부가 여성의 대화 상대로서 여종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 ⑧ 다른 것들은 기억할 수가 없지만, 일찍부터 집안에서 듣고, 부인을 섬겼던 늙은 여종의 말을 참작하여 부인 당시의 일을 이야기할 수 있다. 부인은 성품이 대범하고 엄격하셨는데 다른 사람이 뜻에 맞지 않게 하는 것을 보고 한 번 꾸짖으면 자녀와 며느리들이 모두 겁이 나서 숨을 죽이며 몸 둘 바를 몰라 했다. 고을 사람 중에 시댁과 인척이 있었는데 혼조(昏朝:광해군) 때에 자취를 더럽혔다. 그가 하루는 와서 부인을 뵙고자 하니 부인은 여종을 시켜 병이 나서 만나지 못한다고 거절하며 또 "너는 손님께 벼슬 한자리나 얻었나, 못 얻었나 여쭈어라."라고 하였다. 여종이 이 말을 같이 전하니 그 사람이 부끄러워 뉘우치며 감히 만나 뵙기를 바라지 못하였다(他不能記也, 嘗聞諸家庭, 參以逮事老婢之言, 尙能說夫人時事云. 夫人性簡嚴, 見人不如意, 一有咄責, 諸子女婦, 皆屛氣惕息若不容. 鄕人與舅家有嫌者, 染迹昏朝. 一日, 來上謁, 夫人使婢, 辭以病不見, 且曰: "汝問客得爵未." 婢並傳此言, 其人羞恨, 亦不敢望焉.). (조덕린[趙德鄰], 「曾祖妣宜人崔氏墓表」『玉川集』 7:39)

위의 사례(⑧)는 여종이 전언한 사대부 여성의 성품과 행위, 말에 관한 기록이다. 사대부 여성의 삶을 이해하는 데는 남성 가족(대체로 남편, 아들, 아버지, 시아버지 및 남성 친척)의 기록에 의존해야 하지만, 그밖에

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웹 구축의 과정에서 반드시 통과하고 또한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디지털 소통 과정에서 수용자의 자정 능력이 향상되어, 유의미하고 유효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까지, 일정한 시간적・경제적・정서적 비용 투자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본다(네티즌의 즉흥적, 감정적, 악성 댓글이 유의미한 정보 교환과 토론, 성찰절 대화로 이어지기까지 걸린 시간과 비용에 대한 데이터가 이에 대한 하나의 참조 사례가 될 수 있다.).

16) 남성 문인의 경우, 중인과의 교류나 상민, 천민과 교섭하여 문단을 형성한 것을 '중인문학'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문학사 재구성 작업이 의미 있게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에도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여종, 유모, 마을 사람들과의 항상적인 교섭이 있어 왔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이들과 '인격적 관계'를 나누고 교섭했을 경우, 그 의미는 사대부 남성이 중인층과 문화교류를 한 것 못지않는 역사・문화적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인문학'이 '남성'과 '문자(한문)'을 매개로 성립한다면, 여성의 경우는 한문과 언문(한글)이라는 이중 문자를 고려하고, 여기에 '구술성'이 매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여성 가족과 지친 및 여종의 증언과 전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17]

사실상 사대부 여성은 여종이나 유모와 일상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는 음식 장만과 빨래, 침선 등의 가사노동, 방적, 농사일, 제례, 손님접대, 육아, 편지 배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18] 이들은 실질적으로 사대부가 여성과 대면해 대화하거나 함께 노동하고 육아에 참여하는 등 삶의 파트너이자, 때로는 대화 상대이기도 했다. 여종의 역할은 사대부 여성의 명령을 듣고 복종하는 주종 관계만으로 한정되지는 않았다. 이들은 여성의 생애사 기록에 대해 남성 기록자에게 전언하고 구술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었고, 그 자체로서 그들의 생활사를 증언하는 부수적 효과를 파생시켰다. 이때 여종의 구술은 사대부 여성의 삶, 인품, 행위에 대한 증언이면서 동시에 자기를 역사화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수반했다.

사대부가 여성의 자료 구축에는 당연히 '여종'과 '유모'가 포함되어야 한다. 여성 문화지리에 관한 디지털 자료 구축 작업을 디자인을 할 때, 이들과 관련된 부분은 '보이지 않는 역사' 또는 '낮은 존재들(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제를 클릭하면 열리는 새로운 '창'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새로 열린 '낮은 존재들'의 창은 일차 화면에 보이는 작은 배너 사이즈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설계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교환될 신분, 젠더, 연령, 지역, 인종에 따른 여러 문제에 대한 대화[차이, 차별, 위계화, 호기심, 호감, 교섭, 장벽 등]는 세계화 시대와 현대 한국사

17) 이에 관해서는 조선시대 여종과 유모의 사회적 역할 및 지위에 대한 문화사적 성찰을 '여성 노동'의 관점에서 분석한, 최기숙, 「여종과 유모: 17~19세기 사대부의 기록으로부터- '일상・노동・관계'와 윤리 재성찰을 위하여」(『국어국문학』 181, 국어국문학회, 2017, 105~162쪽)을 참조.

18) 양반가 노비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근래 전라도 부안 김씨가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전경목의 연구(「양반가에서의 노비 역할: 전라도 부안의 우반동 김씨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반문화』 15-1, 2012, 217~264쪽)와 이정수의 연구(「조선후기 蘆尙樞家 奴婢의 역할과 저항」, 『지역과 역사』 34호, 부경역사연구소, 2014, 179쪽)를 참조.

회를 재성찰하는 주요한 인문적 자원이 될 수 있다.).

3. 지워진 길 찾기: 투명하게 존재하는 흔적, 그림자 읽기

이 장에서는 여성의 문학과 문화적 행위성에 주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자료 수집의 관점과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이때, 여성에게 공시적으로 문자생활을 권장하지 않거나 금기시했던 조선시대의 역사적 맥락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삼는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어떤 방식으로 문자생활을 향유했으며, 그에 대해 사대부 남성은 어떠한 태도와 시선을 보였고 또한 이를 기록했는지를 분석하여, 이를 여성문화지리 설계에 참조한다.

3.1. 여성 지식/교양의 습득 경로

조선시대 여성에게 문자 생활은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문자생활을 향유하고 독서와 문학적 글쓰기를 했으며 그 나름의 학문 생활을 영위했던 정황을 찾아볼 수 있다.[19]

19) 예외적으로 '왕실'의 여성에 대해서는 그들의 문자생활을 구태여 숨기려는 의도를 표현하지 않았음이 다음의 사례를 통해 확인된다. 이는 여성의 문자생활에 대한 이중 잣대, 위계적 면모를 드러내는 사례에 속한다.: '세상의 부인들은 몰래몰래 돈 모으는 일에만 신경을 썼지 문필에 종사하는 이가 드물다. 지금 공주께서는 왕실의 자손으로서 깊은 수심으로 삼가고 조심하는 가운데에 이와 같이 문필에만 뜻을 두실 수 있었으니 이는 참으로 기특한 일이다. 그런데 이제 또 임금께서 쓰신 글을 얻어 멀리 전해져 앞으로 종이에 쓴 글과 함께 사라지지 않을 것이니, 이는 또 더욱 기이한 일이다(世之婦人, 唯窃窃錢刀, 鮮有從事文墨者. 今主以天家子, 乃於幽愁畏約之中, 獨能留意筆研如此, 斯固事之奇者. 而今又得宸藻發揮, 其流傳之遠, 將不與紙墨俱弊, 斯又事之尤奇者也.).' (이덕수[李德壽], 「御贊貞明公主墨跡跋」 『西堂私載』 4:104); '효종은 공주에게 『효경』 『내훈』 『소학』 등의 책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공주가 당시에 아주 어렸지만 대강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있었다(孝廟嘗教公主孝經・內訓・小學等書, 公主時甚幼, 能通大

글쓰기, 독서, 토론, 지적 대화와 학문적 토론 등을 포괄적 의미에서 '교양'으로 명명한다면, 조선시대 여성 교양의 습득 및 형성 경로를 파악하여 정리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20] 사대부 남성의 경우,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교양과 지식의 습득이 공적으로 장려되고 보장되었으며, 서당이나 향교, 성균관 등 공적 교육 기관을 통해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여성에게는 가정교육 이외에는 지식과 교양의 습득 경로에 대해 달리 마련된 것이 없었고, 또한 권장된 것이 아니었기에, 다양한 문학/문화사적 자료를 통해 여성 교양의 습득 경로를 재구할 필요가 있다.

여성 생애사 텍스트를 통해 확인되는 여성의 글쓰기, 독서, 토론, 지적 대화, 학문 토론 및 글쓰기 등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의 장 안에서 여성이 교양을 습득하고 형성해 나간 방식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박문강기(博聞强記)', 즉 듣고 외는 방식이다. 남성에 대해서는 많은 책을 섭렵하고 축적하는 '박람강기(博覽强記)'가 지식 습득의 경로로 언급되었다면, 공식적으로 글을 배우도록 권장되지 않았던 여성의 경우에는 문자를 배우지 않고도 '듣기'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외어 기억하는[21] '박문강기'의 방식으로 학문과 교양, 문학적 소양을 쌓았음이 확인된다.

> ⑨ 옛날의 치란 우리나라의 옛 사실 등에 대해서도 널리 들으시어 기억을 잘 하셨고, 그에 대해 통달하고 훤히 깨달아 가만가만 말씀하시면 들으면서도 지루한 것을 잊을 정도였다(往昔治亂・國朝故實, 博聞强記, 多所通曉, 娓娓誦說, 聽之忘倦.). (...) 선대와 옛날 성현들의 아름다운 말, 착한 행실 등을 들

義, 多所踐行.).' (홍태유[洪泰猷], 「祖妣淑安公主家狀」『耐齋集』 4:198)

20) 제도 교육을 중심으로, 또는 기록에 남은 문예 양식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교양의 형성 경로를 살피는 작업은 자연스럽게 여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문학사 서술 분야에서는 '여성문학' 특히 '고전여성문학'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여, 여성의 행위와 몫을 정당하게 재평가해서 문학사 서술에 반영해야 한다는 관점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미 그 실천 사례가 '역사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식사, 지성사, 학술사적인 관점에서 '여성'을 고려하는 방식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체감하기에 이 부분을 다시 강조했다.

21) 이것의 진위는 '표현'상의 문제이므로, 이 장의 3.2절에서 논한다.

어가면서 힘쓰도록 하셨다(常擧先代及古賢人嘉言善行以勖之). (유척기[兪拓基], 「先妣貞敬夫人李氏墓誌」『知守齋集』 3:122; 123)

⑩ 여형공의 가법을 매우 사모하여, 여러 자식들이 말을 배우면 직접 외워서 가르쳤다(深慕呂滎公家法, 諸子學語, 已誦而詔之.). (이재[李縡], 「伯舅母貞敬夫人延安李氏行狀」『陶菴集』 6:108)

⑪ 너는 그때 글자를 알지 못했는데, 내가 소리에 느낌을 들리게 하여서 가르침이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 마침내 시경 정풍을 들어서 가르치니 『주남』과 「소남」과 <계명>, <상체> 같은 것은 모두 외워서 익힌 것이다(汝時未識字也, 余聞感於聲者敎易入也. 遂擧詩之正風而訓之, 若二南鷄鳴常棣, 皆其所誦而習也.). (남유용, 「祭姪女李氏婦文」, 『雷淵集』 3:236)

위의 사례는 여성이 문자를 알지 못하더라도 듣고 외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독서와 학문 생활이 가능했음을 보여준다. 남유용의 글(⑪)을 통해서는 여성이 <시경>을 문자로 읽는 방식이 아니라 듣고 외어서 향유했음을 알 수 있다. 이재의 글(⑩)을 통해서는 여성이 글을 들고 외어 자녀 교육에 활용했음이 파악된다. 유척기의 글(⑨)을 통해서는 여성이 '박문강기'와 '구술성'을 통해, 사대부 남성의 전형적인 제도적 글쓰기 방식이었던 '전고 활용'의 언어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신의 논지를 강화하고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현의 글이나 중국과 조선의 역사적 사례를 논거로 사용하는 '전고 활용'이 여성의 경우에는 듣기, 기억하기, 말하기 등의 행위로 실천되었던 것이다. 이는 문자적 차원에서 수행되었던 사대부 남성의 학문 행위가 여성에게는 구술성을 통해 발현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남성만이 학문 생활을 하고 제도적 글쓰기를 수행했다고 간주하는 학술사적 이해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22]

22) 지식과 교양의 습득 경로를 구술과 '시/청/촉'각적 경험 차원으로 확대하면, 조선시대 신분제의 하위 기단을 형성했던 여종과 유모도 지성과 교양을 갖출 수 있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17세기 소설 <구운몽>에는 이미 이러한 발상이 정경패의 여종 '가춘운'을 통해 구체화되어 있다. 조선시대 여종의 모범은 자신이 결코 '될 수 없는' 존재인 '상층 여성'이었으며, 이들은 여종의 일상생활 공동체이기도 했다. 여종과 유모가 교양과 지성을 습득했을 가능성에 대한 논증은 최기숙, 앞의 글, 2017, 112~113쪽, 118~120쪽을 참조. 유몽인(柳夢寅. 1559~1623)의 『어우야담』에는 유충신(劉忠信)의 노복 허약대(許若大)가 언문을 알아 노주의 가르침을 받아 점성술책인 『단시점방서(斷時占方書)』를 익혀 점술가가 되는 장면(328화)이 묘사

둘째, '필사(筆寫)'와 '수서(手書)', 즉 손으로 베껴 쓰기를 통해 글쓰기를 섭렵했던 여성의 실천이다.

> ⑫ 공인은 나면서부터 모습이 단정하고 깨끗하더니 자라나면서 『소학』『삼강행실』 등을 보기를 좋아하여 손수 베껴서 입으로 외웠다. 전기 같은 책들은 세속 부녀자들이 좋아했지만 공인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恭人生而姿容端潔, 稍長喜觀小學三綱行實, 手書而口諷. 如傳奇諸書, 世俗婦女所深喜, 而恭人獨不肯寓目.). (이덕수, 「恭人金氏墓誌銘」『西堂私載』 4:143)
>
> ⑬ 숙인은 부모님을 일찍 잃으시어 노선생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치셨다. 일찍이 『성리자의』 같은 옛 현인의 격언과 옛 사람의 아름답고 선한 말과 행동을 언문으로 옮기셔서, 나의 돌아가신 어머니와 숙인으로 하여금 다시 읽고 서로 베끼게 하시어 합하여 한 질을 만들어서 늘 주목하고 지켜 행하게 하는 기반을 삼으셨다. 지금 그 책이 아직도 남아 전하고 없어지지 않았다(淑人始早孤, 老先生憐而敎之. 嘗諺翻先賢格言若性理字義與古人嘉言善行, 使我先妣與淑人更書而互寫, 合成一帙, 以爲常目服膺之地. 今其冊子尙傳留不泯.). (신경[申暻], 「淑人朴氏墓誌」『直菴集』 3:167)

위 사례는 여성이 글자를 익히는 과정에 대한 서술이 없이, 글을 베끼고 옮겨 적어 공부하는 과정을 기록했다.[23] '필사'와 '수서'의 대상은 『소학』, 『소학언해』, 『삼강행실』, 『성리자의』 등 경전과 학술서가 대부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기 등의 소설류는 필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배척했음을 서술하여,[24] 대상 여성이 당대의 제도적 문(文)의 규범을 고수했음을 강조했다.

여성이 편지를 옮겨 적거나 남성이 언문으로 번역한 책을 다시 베끼는 방식으로 그 내용을 익힌 사례도 발견된다. 이러한 여성의 필사 행위에는 기본적으로 문자에 대한 이해, 즉 '문식성'이 전제되어 있다. 임성주가 아내가 책을 베껴 적었을 뿐만 아니라 시도 지었음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

되어 있다. 언문을 아는 노복의 존재는 언문을 아는 여종과 유모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한다. 유몽인, 『어우야담』, 신익철 · 이형대 · 조융희 · 노영미 역, 돌베개, 2006, 524쪽.

23) 문자를 알았고 읽었다는 표현 대신에 이를 '옮겨 적었다'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절(3.2)에서 논한다.

24) 이덕수, 「恭人金氏墓誌銘」『西堂私載』 4:143.

‘자손에게 보여줄 만하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것은, 예외적이지만 여성 문학과 여성 지성에 대한 정당한 인정이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셋째, 여성이 가정에서의 교육을 통해 문자와 문학, 학문을 습득했음이 파악된다. 듣기, 외기, 필사/수서가 여성 자신의 자발성에 의한 자득, 자습의 학습 경로였다면, 가정에서 여성에게 문자와 글을 가르친 사례는 가족 간에 여성의 문식생활에 대한 이해와 인정이 가능했음을 시사한다.

> ⑭ 숙인은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그를 매우 가여워하며 자신이 직접 길렀다. 조금 자라서는『여계』,『삼강행실도』등의 글을 가르치자 환히 깨달아 알고 외우며 익혔다(淑人四歲母歿, 父憐之甚, 躬自鞠育. 稍長, 授以女戒三綱行實等書, 頗通曉誦習.). (채제공[蔡濟恭] 「烈女淑人趙氏墓誌銘」『樊巖集』5:70)
>
> ⑮ 딸이 일찍이 여러 사촌 언니들과 함께 언문을 배웠는데, 지혜롭고 영리하기가 그 딸을 따라오지 못하였다. (女嘗與庶從姊學諺, 慧悟不及於女.). (이민보[李敏輔],「孺人延安李氏墓誌銘」『豐墅集』8:376)

여성에 글을 가르친 이는 아버지(⑭), 남편,[25] 할아버지[26]등이다. 여성은 이들에게 개인적으로 배우거나 사촌언니들과 함께 배웠다. 후자의 경우(⑮)는 여성 교육이 가정과 친족 중심으로 집단화한 사례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배운 문자는 언문과 한문이 모두 해당된다. 학습자인 여성이 자기 교육 욕구를 가지고 있었음은 남유용의 글을 통해 파악된다. 홍주국의 딸이 부모님의 덕이 담긴 글을 읽을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오라비 낙정공에게 한문으로 작성된 글을 한글로 번역해 달라고 부탁한 사례[27] 또한 여성의 자기 교육열을 투영하고 있다. 홍씨는 오라비가 번역한 언문을 손수 베껴 적어 익혔을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읽어주었다. 한문은 알지 못했으나 한글을 읽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은 부모의 덕을 이해하고 자녀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효와 자녀교육이라는 명

25) 남유용,「亡室恭人杞溪兪氏墓誌銘 幷序」『雷淵集』3:268.
26) 윤광소(尹光紹),「貞敬夫人趙氏行狀」「素谷遺稿』8:48.
27) 남유용,「贈貞夫人豐山洪氏墓誌銘 幷序」『雷淵集』3:277.

분이 여성의 자기 교육열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구하는 맥락성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문식성이 자녀교육의 매개가 되었다는 점도 '교육사'와 실천적 '지성사'의 맥락에서 재조명해야 할 부분이다.

넷째, 기록된 사례로서 드물기는 하지만, 여성의 문자생활과 독서 생활을 격려했던 문화도 존재했음이 발견된다.

> ⑯ 노선생께서 과제를 내시어 오빠들에게 읽게 하시면 어머님께서는 옆에서 듣고 종종 외워 내셨는데, 노선생께서 가상히 여기시고 이에 『내훈』이나 『여제』 등의 책을 주셨다. 어머님께서는 깊이 생각하며 묵묵히 연구하시고, 한 번 배우면 잊어버리지 않았다. 또 몸소 실천하여 실제로 몸에 익혔으니, 즉시 언행이 반드시 나타났다. (老先生課諸兄讀, 先妣旁聽, 往往成誦, 老先生奇之, 仍授內訓女誡等書. 先妣潛心默究, 一受不忘, 又克躬踐而實體之, 造次言行必稽焉.) (신경, 「先妣遺事」『直菴集』 3:217)

여성의 총명함, 영특함은 '가르치지 않아도 문자를 아는' 자득적 문식력으로 표현되었다. 여성의 탁월한 문식력을 칭찬하는 인정구조는 '예로부터 여성 문자는 박명하다', '우리 가문이 쇠퇴하겠다'라는 반어적이고 자조적인 표현을 통해, 역설적으로 '존재했음'이 드러났다. 다만 그토록 뛰어난 여성이 아들이 아니라 딸인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칭찬과 인정을 대신했던 것이다.

다섯째, 위에 열거한 각각의 방식이 혼융된 사례다.

> ⑰ 항상 글을 맡아 놓고 읽지는 않으셨지만, 어려서부터 『소학』, 『열녀전』, 『반씨가훈』, 『삼강행실』 등의 책을 보기 좋아하여 언문으로 옮긴 책들을 옆에 두었고, 경전과 역사서도 소홀히 하지 않아서, 일이나 행동을 하나라도 귀에 들은 것이 있으면 외워 잊지 않았다. 평소 말하고 웃는 것이 드물어, 마치 말하고 글 짓는데 능하지 못한 듯했으나, 옛날의 현인이나 사악한 사람, 역대의 성패를 논하는 데 이르면 막힘이 없어 듣는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았다. 모든 자제가 배움에 들어가면 모두 『발몽기』(진의 저작랑 속성이 지은 책)를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글자의 淸濁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착오가 없었다. 항상 말씀하시기를, "글을 안다는 사람들은 마땅히 먼저 청음인지, 탁음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요즈음 깨나 안다는 사람들은 단지 평측만 알 뿐이고 청탁을 구분 못하니, 매우 잘못된 것이야. 너희들은 반드시 구분 하거라."하셨다. 자녀

> 들이 책 읽는 소리를 듣기 좋아하셨으며, 본받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써놓은 곳에 이르면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가다듬고서 다시 읽도록 하셨다(常不以文識任, 自幼喜看『小學』·『列女傳』·『班氏家訓』·『三綱行實』之屬, 諺翻書旁置, 不捨經史, 事行一耳誦不忘. 平居罕言笑, 若不長辭令, 至論前古賢邪, 歷代成敗, 衮衮聽者不厭. 諸子始入學, 皆自教『發蒙』, 至字音清濁, 一無差誤. 常曰: "識字者宜先辨清濁. 今世號有識者, 只解平仄, 不分清濁, 甚不可. 汝曺當辨之." 喜聽諸兒讀書, 至言行可法處, 輒改容起敬而令復之.). (이광사[李匡師], 「先妣貞夫人坡平尹氏墓誌」『圓嶠集』 3:474)

이광사의 글을 통해 그 어머니가 언문으로 번역한 경전과 여훈서류를 읽었고, 그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체화해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의 바탕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이광사의 어머니는 음성학에 조예가 있고, 이를 자녀에게도 필수적 교양으로 강조할 정도의 지적 소양을 갖추고 있었다. 김재찬(金載瓚)은 삼종형 김재혁의 첫째부인 윤시를 위해 쓴 광지에서 타인이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외는 방식으로 『시경』과 『소학』 등의 경전과 당시(唐詩)의 소양을 갖추고, 종종 놀랄 만한 시를 짓기도 했음을 서술했다.[28]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 여성의 지식/교양의 습득 경로는 남성과 달리 문헌 중심성이 아니라 구술과 청취문화, 암기 등 구술성과 연계되었으며, 문헌을 볼 줄 알고 실제론 익히더라도 그것을 강조하여 '여성의 역량'으로 재현하는 태도는 지양되었다.

3.2. 여성 지식/교양의 재현 방식

조선시대에 여성이 글쓰기나 독서를 했다는 것은 '내세울 만한 사실'로 간주되지 않았으므로, 여성 지식/교양을 재현하는 방식은 간접화되거나 숨겨지고, 때로는 이중 화법으로 모호하게 처리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 여성이 독서와 글쓰기에 능했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으

28) 김재찬, 「恭人尹氏壙記」『海石遺稿』 3:610.

면서도 교양을 갖추었고 문학적 소양이 있었음을 드러내기 위해, 여성의 탁월한 '재능'과 '타고난' 본성을 강조하는 방식을 취했다. 여성이 독서하고 글을 쓸 수 있었음을 기록할 때에는 '배우지 않고도 알았다.' '책을 읽지 않았지만 언행이 책과 일치했다', '독서를 하지 않아도 내용을 이해해서 자녀 교육에 활용했다'는 등의 표현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 ⑱ 며느리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근래에 좌도(유교에 어긋나는 것)가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겠으니, 삼가서 무격(巫覡)으로 우리 가문을 더럽히지 말라." 학문을 하지 않았어도 도리를 아는 것이 이와 같았다(語諸子婦曰: "吾近覺左道全無理, 愼勿以巫覡涴吾門." 其不待學問而識道理如此.). (정범조[丁範祖], 「淑夫人淸州韓氏墓碣銘」『海左集』 5:207)
>
> ⑲ 숙인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영리하여 경전과 사서의 대의에 대략 통하였는데 부모님이 특별히 아끼면서 이렇게 말했다. "네가 남자가 되어 우리 집안을 크게 하지 못하는 게 한스럽구나."(淑人幼而聰穎, 略通經史大義. 父母奇愛之曰: "恨汝不得爲男子, 以大吾門也.") (...) 숙인은 고금의 일을 널리 섭렵하며 식견이 아주 뛰어났고, 정도(正道)로 남편을 인도하고, 의리로써 자식들을 가르쳤으며 또 늙어서도 부모에 대한 효심이 줄어들지 않았다. 그 말은 종종 글 읽은 남자도 미칠 수 없는 것이 있었다(若淑人則博涉今古, 見識偉然, 能導夫子以正, 敎兒子以義, 又老而孝不衰於父母. 其言往往有讀書男子所不能及者.). (이재[李縡], 「淑人恩津宋氏墓碣」『陶菴集』 4:430; 432)
>
> ⑳ 비록 독서를 한 적은 없지만 또한 역사와 경전에 대략 통하여서 부학군이 처음 배울 때 익힐 바 모두 부인이 말로 가르쳐주었다. 이에 부학군 형제가 서로 높은 과거에 이어 올랐고, 높고 영예로운 자리에 출입했다(雖未嘗讀書, 亦畧通史傳. 副學君初學所習, 皆夫人口授. 乃副學君兄弟相繼登高科, 出入華顯.). (남유용, 「貞夫人南原尹氏行狀」『雷淵集』 3:321)

정범조는 숙부인 한씨가 '학문을 하지 않으면서 도리를 알았다'고 서술했는데(⑱), 이는 문자, 독서 등 남성적 지식 습득의 경로를 매개하지 않은 여성의 교양과 학식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자득, 타고난 품성, 재능, 통찰, 감식력 등을 치하하면서도, 이러한 여성의 소양과 능력이 '문자화된 지식'을 매개로 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재는 숙인 송씨가 어려서 총명하여 경전과 사서에 대략 통했다는 표현으로 지적 소양과 교양을 갖추었음을 표현했다(⑲). 문자를 배웠다는

표현 대신에 서책의 내용을 알았고, 고금의 일을 섭렵했다는 식으로 여성의 지적 소양을 '대리-표현'한 것이다. 또한 송씨의 말이 글을 읽은 남자 못지않다는 표현으로 송씨의 지성적 면모를 전달했다. 여성의 '말'을 남성의 '글'에 견주는 수사적 방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남유용은 호조참판 이우신(李雨臣: 1670~1744)의 아내인 윤부인에 대해서는 독서를 하지 않았지만 역사와 경전에 통해서 아들에게 이를 가르쳐주었다고 적었다(⑳). 앞서 논한 바에 따라 추론하면 윤부인의 지식 습득의 경로는 문자를 읽는 독서방식이 아니라 듣고 외는 '박문강기'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황은 "문자를 배우지 않음=무지"의 도식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여성은 문자 이외에도 구술과 청취만으로도 교양과 지식을 쌓고, 이를 후세에 가르치고 전하는 교육과 전승력까지도 발휘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여성이 글쓰기와 읽기를 배우는 상황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고 결과적으로 독서생활을 즐겼음을 기록하는 방식을 통해, 여성의 박식함과 교양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 ㉑ 외모는 단정하고 깨끗했으며 마음은 강직했는데, 병이 나서 한가롭게 여공을 익힐 수 없게 되자 언해로 된 고금의 문학과 역사책 보는 것만을 즐거움으로 삼았다(外貌端潔, 中心狷介, 病不能閑習女工, 獨喜觀諺譯古今文史.). (이복원[李福源]「亡女墓誌銘」『雙溪遺稿』 5:93)
>
> ㉒ 노선생께서 과제를 내시어 오빠들에게 읽게 하시면 어머님께서는 옆에서 듣고 종종 외워 내셨는데, 노선생께서 가상히 여기시고 이에 『내훈』이나 『여계』 등의 책을 주셨다. 어머님께서는 깊이 생각하며 묵묵히 연구하시고, 한 번 배우면 잊어버리지 않았다. 또 몸소 실천하여 실제로 몸에 익혔으니, 즉시 언행이 반드시 나타났다. 노선생께서는 늘 그 등을 쓸어주시며 감탄하시기를, "안타깝다. 네가 아들이었다면 우리 집안이 외롭지 않았을 것을!"이라고 하셨다(老先生課諸兄讀, 先妣旁聽, 往往成誦, 老先生奇之, 仍授『內訓』『女誡』等書. 先妣潛心默究, 一受不忘. 又克躬踐而實體之, 造次言行必稽焉. 老先生每撫其背而歎曰: "惜乎! 女也若使男子, 吾事庶不孤矣."). (신경, 「先妣遺事」『直菴集』 3:217)

딸이 언해본 문학서적과 역사서를 읽었다는 이복원의 글(㉑)에는 여성

의 언문 문해력이 이미 전제되어 있다. 신경의 어머니는 어려서 오빠가 공부하는 것을 듣고 외워 지식을 쌓았으며, 『내훈』과 『여계』를 읽고 연구하며 실천했다(㉒). 그러나 이 글에는 여성의 지적 능력이 강조되었을 뿐, 문자 습득의 현황에 대한 언급은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셋째, 글을 읽을 줄 알았지만 숨겨서 아무도 모르게 했던 경우다. 앎을 드러내지 않은 여성의 태도는 겸양과 부덕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 ㉓ 할머니는 천성이 단정하고 방정하시어 말씀이나 웃음이 적었다. 문장이나 역사, 시문도 대부분 꿰뚫어 아셨지만, 입을 다물고 조용히 계셔서 겉으로 마치 모르시는 것 같았다. 총명함이 뛰어났는데, 어릴 때 한번 본 것은 다 암송하였지만 다른 사람과 마주하여 주거니 받거니 할 때에는 마치 아주 우둔한 것처럼 했다. 그리하여 한 집안 부녀자라고 해도 다만 그 분이 온화하여 조용한 덕에 감복할 따름이었고, 그 총명함이 빼어난 것은 알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밤이 깊이 인기척이 잠잠해질 때마다 산배는 때로 여동생들과 당시(唐詩)의 삼대작(三大作)과 『등왕각』, 『적벽부』 등을 암송했는데, 더러 막히어 더듬거릴 때가 있으면 할머니께서 꼭 그 막히는 부분을 지적하시며 기억을 떠올리게 하실 뿐이었고, 그 전편을 다 암송하려 하지 않으셨다(先祖妣性端方, 寡言笑. 文史詩賦, 多所通曉, 而韜能靜嘿, 外若不知. 聰明絶人, 少時所經眼, 皆能暗誦而對人酬酢, 如甚遲鈍. 故雖一家婦女, 只服其恬和安靜之德而已, 亦不知其聰明穎達. 而每當夜深人靜時, 山培或時與諸妹誦唐詩三大作及滕王閣赤壁賦之屬, 有時礙滯, 則先祖妣必提其礙處, 使之記悟而已, 亦不肎盡誦其全篇.). (이덕수[李德壽], 「先妣行錄」 『西堂私載』 4:189)

이덕수는 어머니 심씨를 위한 행장에서,[29] 어머니가 문학과 역사에 해박했지만 모르는 것처럼 처신하고, 타인에게 우둔한 듯 대한 것, 손자가 시를 암송하다 막히면 알려주되 전편을 외어 지식을 과시하지 않은 점을 미덕으로 서술했다. '알고 있지만 모르는 것처럼 처신하기'는 교양 있는 여성이 갖추어야 할 부덕으로 간주되었고, 이러한 표현은 여성의 품성과 생애를 서술하는 다양한 남성 필자의 글에서 발견된다.[30]

---

29) 이 글은 이덕수가 아들 이산배가 쓴 심씨 행장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인용문에서 '할머니'로 언급된 인물은 이산배의 할머니인 이덕수의 모친 심씨를 지칭한다.

30) 柳道源, 「姪孫婦李孺人哀辭」 『廬厓集』 5:195; 이재[李縡], 「從弟婦孺人安東金氏墓誌」 『陶菴集』 6:91; 이재, 「伯舅母貞敬夫人延安李氏行狀」 『陶菴集』 6:106 등.

㉔ 스스로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읊기도 했는데 아들에게 "네가 은일하고자 하면 나는 반드시 쫓아갈 것이다."라 하였다(自說陶淵明辭. 言於子曰: "早使汝爲隱逸, 則吾必從之."). .(...) 총명하고 옛 것에 박식하여 삼황 이하 명나라와 우리나라 역사의 치란과 존망, 인물의 사악함과 바름, 일의 올바름과 그름에 이르기까지 통달하여 꿰뚫지 않은 것이 없었다. 건원(建元) 이후 역대 연호, 우리나라 옛 일, 선비의 씨족 등을 일일이 열거하는 데에 조금도 틀리거나 섞임이 없었다. 생각해 보면 안으로 감춤이 심하여 자손 외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고, 나도 친척으로서 담을 같이 하여 살았으면서도 또한 부인에게 이런 면이 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으니 그 현숙함이 미칠 수 없는 것이었음을 더욱 볼 수 있다(聰明博古, 自三皇以下, 至皇明東國史治亂存亡, 人物邪正是非, 無不通貫. 建元以後歷代年號, 國朝故事, 士夫氏族, 歷擧無少錯, 顧闊晦甚, 子孫外皆無知者. 以余親黨同閈, 亦未嘗聞夫人有是此, 愈見其賢不可及也.)[31] (이민보, 「貞敬夫人李氏墓誌銘」『豐墅集』 8:368; 371)

여성의 글쓰기와 읽기 능력은 '적극적'으로 숨겨졌다. 자손에게는 드러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로는 알려지지 않는 것을 명예로 여겼으며(㉔), 때로는 남편과 가족조차 이를 몰랐다는 사실을 적기도 했다. 김창협의 셋째 딸로 오진주(吳晉周)의 아내가 된 유인 김씨는 아버지와 문장과 역사에 대해 응대할 정도로 문예와 지식에 탁월했지만, 남편조차 아내의 문식력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이를 사적 영역에 감추어 두고 있었다.[32].

넷째, 여성의 문식성에 대해 이중적으로 서술하거나, 모호하게 표현한 경우다. 하나의 텍스트 안에 대상 여성이 글을 몰랐다고 서술하는 동시에, 독서를 하고 글을 지었다는 '모순적' 문장을 병치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㉕ 비록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때때로 이치에 닿는 말을 했으니 유인과 같은 자를 어찌 다시 얻을 수 있겠는가? 유인을 남자가 되게 했다면 반드시 우리 중부의 뜻과 사업을 잘 이어 우리 집안을 더욱 크게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 유인은 직접 『소학』과 『삼강행실』을 쓰고 항상 스스로 살펴보

31) 글을 써서 이런 여성이 존재했다는 것을 다 같이 알게 하고, 여성의 역량에 대한 수정된 견해를 공유할 수 있다.

32) 이하곤(李夏坤), 「孺人金氏哀辭」『頭陀草』 4:340.

며 나에게 그 책 겉에 제목을 써달라고 부탁하고자 했으나 미처 하지 못했다고 한다(雖不讀書而往往有理到之言, 如孺人者, 豈可復得耶! 使孺人幸以爲男, 必善述我仲父志業, 以益大吾門, 而旣不能焉. (...) 孺人手書『小學』及『三綱行實』, 常自省覽, 欲請余題其書面而未及云.). (李綵, 「從妹孺人李氏墓誌」『陶菴集』 6:64)

㉖ ⓐ 어머니께서는 식견과 뜻이 매우 높으셨는데, 평소에 책을 두루 읽지는 않으셨으나 말과 행동에 드러나는 것은 옛 사적에 기록된 것에 은연중 부합했다. ⓑ "여자의 직분은 집안을 다스림에 부엌일을 주관하며 조상을 받듦에 제사를 올리는 것뿐이다. 글씨를 쓰고 편지를 보내는 등의 일에 정신을 피로하게 하며 말을 주고받는 것을 능사로 삼는 것은 곧 문인 재사의 일이지 여자가 마땅히 할 바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 그러므로 근세의 규방에서 전하는 일종의 패서는 일찍이 읽으신 적이 없었으며, 오직 옛날 절행이 있는 부인을 기리는 제문을 보는 것을 좋아하셨다. 혹 눈물을 흘리시며, "슬프고 괴로운 사람은 정이 서로 감응하는 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 자매들을 돌아보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으면 반드시 글을 써서 나를 제사 지내 주세요."라고 하셨다(先妣識趣甚高, 平日不讀涉書傳, 而其見於言行者, 暗合於古圖史所記者. 嘗曰: "女子之職, 治家則主饋, 奉先則祭祀而已. 至若疲精於筆墨翰札之間, 以言語往復爲能事者, 卽文人才士之事, 非女子所宜爲也." 故於近世閨閣所傳行一種稗書, 未嘗染指. 獨喜觀古有節行婦人誄文. 或至沾洒曰: "哀苦之人, 情有相感." 顧語諸姊妹曰: "我死, 必爲文以祭我也."). (...) ⓔ 스스로 밤에 책을 읽기로 하고는 반드시 물시계의 물방울이 30번 떨어지는 시각이 되면 그만두었는데, 매번 등불을 등지고 손으로 삼실을 뽑으며 귀로 읽는 소리를 듣는 것을 일상으로 삼으셨다(自課夜書, 必漏下三十刻乃止, 每於燈背, 手績麻枲, 耳辨讀聲以爲常.) (신정하[申靖夏], 「先妣恭人全州李氏行狀」『恕菴集』 6:177; 179)

이재(㉘)는 사촌 누이 유인 이씨를 위해 쓴 묘지명에서 이씨가 책을 읽지 않았다고 적었으나, 다음 문단에서는 『소학』과 『삼강행실』을 베껴 쓰고(手書) 자신에게 제목을 적어달라고 부탁한 일을 서술했다. 책을 '읽지 않았다/읽었다('베껴 쓰기'는 곧 '읽기'다.)'가 하나의 글에 공존하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독서생활이 권장될 수 없었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지성과 교양을 드러낼 수 있는 유력한 매개가 독서, 즉 문자생활이라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곤경'은 신정하가 어머니를 위해 쓴 행장(㉖)에서도 드러난다. 어머니의 식견이 높았지만 평소에 책을 두루 읽지 않았고(ⓐ), 글씨를 쓰

거나 편지를 쓰는 것을 스스로 경계했음(ⓑ)을 드러내면서도, ‘절행 있는 옛 부인’에 대한 제문 읽기를 좋아하여 공감을 표하고(ⓒ), 자신에 대해서도 제문을 써주기를 당부한 것(ⓓ)은 여성의 문자생활에 대한 사회적 억압에 대해 여성 당사자는 물론 사대부 남성도 일종의 ‘곤경’으로 인식했음을 시사한다. 신정하는 이 글 뒷부분에 어머니가 밤에 책읽기에 심취하여 시간을 정해두고 읽었으며, 읽기를 그치고 삼실을 뽑으면서도 귀로 듣는 것은 멈추지 않았다고 서술했다(ⓔ). 이 또한 책을 두루 읽지 않았다는 서술(ⓐ)과 모순되는 표현으로, 여성의 문식성과 여기에 매개된 지성을 드러내는 일이 사회적으로 억압되고 금기시되었던 풍토를 반영한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한다면, 여성의 문식성 여부나 교양/지식의 재현 방식은 ‘문자화된 기록’을 넘어서 ‘텍스트적 맥락’ 또는 텍스트 작성의 이면까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여성 자료를 디지털로 구축할 경우, 원문 자료를 데이터로 입력하여, 일반적인 키워드 검색, 또는 문장 검색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으로는 실제의 면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

4. 여성문학(사)를 위한 문화지리지 설계

지금까지 고전 텍스트를 대상으로 여성문화지리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디지털화 가능성의 전제가 되는 여성문학/문화사의 인식과 구성의 조건, 문화사적 맥락 등에 관하 논의했다. 이는 기록된 자료를 통해 잃어버린, 또는 박탈된 여성의 주체의 인식, 교섭, 상상에 대한 아이디어를 설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지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되, ‘데이터’의 개념을 대상 자료로 한정하지 않고, 수용자를 포괄하는 확장성 속에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4.1. 여성문화의 확장적 인식과 성찰적 재구축

앞선 논의를 고려하자면, 고전문학 또는 전통문화 자료를 대상으로 여성문화지리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비-문자 감성과 여성의 경험, 그리고 행위로서의 실천을 데이터의 범주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문자(기록)의 측면에 관해서는 앞서 충분히 논의했으므로, 여기서는 경험(감성)과 행위(실천)의 요소에 집중해 논의하기로 한다.

첫째, 여성의 인격, 성품, 행위로서의 실천에 대한 항목화 작업과 자료 수집 방안이다.[33]

김창집(金昌緝)은 장모인 숙인 풍양 조씨를 위해 행장을 썼는데(「淑人豐壤趙氏行狀 作代」『圃陰集』 7:155), 조씨의 아들인 홍처우(弘處宇)를 대신해 썼기 때문에, 서술적 자아는 '홍처우'다. 조씨를 장모가 아니라 '어머니(先妣)'로 지칭한 것은 '대작(代作)'이기 때문이다. 글쓰기의 초점은 풍양 조씨의 '기록한 만한 면모' 즉 인품, 행위, 능력으로 모아져 있다. 이는 여성 문화지리를 자료사적으로 구축할 때, 글쓴이나 서술적 자아가 아니라, 글쓰기의 대상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시사한다. 동시에 당시의 문인들이 어떤 사람과 생애에 주목했는가, 그 사람의 어떤 면을 가치화했는가, 그것은 역사, 사회, 집단, 개인의 어떤 이념과 지향을 표현하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 ㉗ 아아! 부인네들의 일이란 술과 장을 잘 담그고 옷감 짜고 바느질하여 그 부모와 시부모를 봉양하는 데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다. 부인으로서 이런 일을 잘 해낸다면 또한 어질다 하기에 충분하다. 유인은 이에 자족하지 않고 오로

33) 필자는 조선시대 품성 수사에 대한 광범위한 수집을 '지속 가능한 감성-성찰자원'으로 재위시키는 학적 실험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를 동아시아로 확대하는 작업의 타당성과 현실성에 대해 한국과 타이베이에서 토론한 바 있다(연세대 국학연구원, 2016.3.25; The 23rd Pacific Science Congress 2016, Academia Sinica, 2016.6.15. 토론을 참조하여 완성된 논문은 최기숙, 「지속가능한 '감성-성찰' 자원 구축을 위한 한국 '고전/전통' 자원의 재맥락화」, 『동방학지』 175,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6. 이 작업을 세계문학으로 확대하거나 통시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지 가문을 위한 오래고 원대한 계획을 이루려 쉬지 않고 애썼으니, 진실로 중요한 이치를 알았던 것이다(嗚呼! 婦人之職, 莫過於善酒漿織紝, 以養其父母舅姑而已. 婦人而能此, 亦足爲賢矣. 顧孺人不以是自足, 惟汲汲乎門戶久遠之圖, 固已識得大體矣.). (이재, 「人驪興閔氏墓誌」『陶菴集』 4:478)

위의 사례(㉗)는 조선시대 여성에게 일반적으로 요청되었던 자질과 덕목, 역할을 보여준다. 그런데 남성 문인의 시선으로 '가치화된 여성'은 상식 수준 이상의 덕목과 능력을 발휘한, 일종의 '슈퍼우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기록에 남은 여성이란 결코 평범하지 않으며, 기록 자체가 비범성을 증거하는 '쓰기'의 맥락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기록된 여성은 세속 여성과 차별화하는 서술 전략을 통해 이를 극명히 드러냈기 때문에,[34] 문자화된 여성이 대표성이나 보편성을 보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기대수준을 반영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여성의 실천에 대한 감성 어휘의 수집이다. 당시에 여성을 향한 감동, 존경, 존중의 문화적, 역사적 시선의 수집이 필요한데, 이는 곧 여성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인정 구조를 파악하는데 필요하다.

㉘ 어머니는 조상을 받들고 돌아가신 분을 섬김에 한결같이 정성과 공경으로 근본을 삼으셨다(凡奉先事亡, 一以誠敬爲本). (김주신, 「先妣行狀」『壽谷集』 7:96)

㉙ 공인이 젖병을 심하게 앓았는데 마침 김공은 산방에서 독서를 하고 있었으니, 종기가 문드러졌다가 아물 때까지 공에게 알리지 않았다. 만년에 공과 이야기를 나누던 차에 그 일을 이야기 하게 되었는데, 공이 몹시 감동하여 더욱 공인을 존경하고 중하게 여겼다(重患乳癰, 時公讀書山房, 俟潰而合, 不告言. 晩年對公因語次及之, 公動容而益敬重之.). (조덕린(趙德鄰), 「恭人洪氏墓碣銘」『玉川集』 7:32)

김주신의 글(㉘)은 여성의 행적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제시되

34) 문헌에 기록된 여성은 '세속 부녀와는 다르다'는 차별성으로 탁월성을 인정받았지만, 이러한 수사학의 이면에는 여성 일반에 대한 폄훼의 시선이 작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최기숙, 「18세기 여성의 생애사 기록을 통해 본 빈곤의 감성 통제와 여성의 삶」, 『여성문학연구』 32, 한국여성문학학회, 2014, 35~37쪽.

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봉제사'라는 행위성보다, 그것을 수행하는 '정성'(誠)과 '공경'(敬)이라는 감성과 태도의 요소다. 현대적 용어로 번역하자면 '감정노동'이자 '진정성'에 해당하는 '태도'의 문제가 역할에 대한 기계적 수행성보다 강조되었던 것이다.

조덕린(㉙)은 홍씨가 남편(김태중)의 '편안한 독서'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젖병으로 고통 받고 있음을 숨겼음을 서술했다. 홍씨가 고통을 숨겼음을 기록한 이유는 '남편'을 위한 아내의 처신에 '감동'해 '존경심'을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고통을 인내한 것을 '인격성'의 표현이자 실천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남편은 아내의 처신이 개인의 개인적, 가정적 가치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격성의 발현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랑(愛)'이 아니라 존경(敬)과 존중(重)이라는 어휘를 사용했고, 조덕린도 이를 아름답게 여겼다. 이에 대해 '감동했다'고 표현한 것은 여성의 실천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수사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셋째, 이러한 자료를 신분과 연령,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광범위하게 수집할 필요가 있다.

> ㉚ 정하는 어릴 적 약하고 병이 많아서 7세까지 젖을 먹으니, 김씨가 자식에게 젖 먹이던 것을 그만 두고 정하에게 젖을 먹였는데, 7년을 하루같이 했다. 대개 그 근면함이 이에 이르렀다. 정하가 성인이 되어 책 읽는 것을 좋아했는데, 김씨가 일찍이 등불을 등지고 앉아 듣다가 기름을 넣기도 하고 탄 심지를 자르기도 하면서 책 읽는 것을 도왔다. 정하가 조금 이름이 나자 유모는 속히 성공하여 당세에 현달하기를 매일 바랐으나, 정하가 여러 번 과거에 낙방하니 유모는 한 번씩 낙방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때문에 울었다(靖夏幼弱多疾, 七歲猶食乳. 金輟其所乳者以乳靖夏, 七年如一日焉. 盖其勤至此. 靖夏旣成人, 好讀書. 金嘗於燈背坐聽, 或添膏剔炷以助讀. 及靖夏稍有聲, 日望其取功名速, 以如當世之顯者, 而靖夏數困於場屋, 每聞其一落, 輒爲之一涕泣.) (신정하, 「乳母玉僊壙誌」『恕菴集』 6:182)

위의 예문(㉚)은 신정하가 유모 김씨를 위해 쓴 광지다. 신정하의 모친은 여종 김옥선에게 아들(신정하)을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세상을 떠났다. 유모 김씨는 자기 자식에게 먹이던 젖을 끊고 신정하를 키웠다. 그는 일

곱 살이 될 때까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랐다고 적었다.

광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모는 주인집 아들이었던 신정하의 신체적 성장을 돌보는 육체노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신정하와 심리적, 정서적으로 소통하며 지지해 준 감성 돌봄의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정하가 책을 읽는 곁에서 등불에 기름도 넣고 심지를 잘라주며 돕는 역할을 했다. 이 글의 2장과 선행 연구를 참조하자면, 유모가 '듣기'를 통해 지식을 쌓고 교양을 갖추었을 가능성도 있다.[35]

신정하가 유모의 광지를 쓰게 된 것은 친밀한 사적 관계와 정서적 연대, 감성적 의지, 키워둔 데 대한 고마움이 작용했다. 정서적 연대와 친밀성, 감사를 나누는 관계란 인간관계에서 최고의 경지에 해당한다.

위의 사례들은 감성의 차원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감동'의 문화 동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사람이 어떤 면에 감동을 받아 말, 마음, 행동, 태도, 시간, 관계, 사회, 세계를 움직였는가는 '정동' 차원에서 주요한 문화사적 자료로서의 가치를 포함한다. 둘째, 신분 별로 디지털 자료를 구축하는 것 이외에 '신분 간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신분간 관계를 떠나 '인간관계'라는 보편적 차원에서 검색 가능한 데이터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4.2. 수용자의 [해석/반응]의 [창의-생산-정보화] 가공

'기록'된 문헌을 중심으로 여성의 경험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단지 여성적 경험을 축소하고 박탈된 역사성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작업이 될 수 있는 것은, 기록자의 기록 행위 자체가 젠더와 신분을 '매개'한 과정이자 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한문으로 기록된 자료의 대부분은 남성의 시선을 경유한 것이다. 여기에는 여성의 주체성과 당사자성이 배제되어 있다. 이는 문자화된 텍스트의 생성 맥

35) '조선시대 여종의 교양과 지성'에 관해서는 최기숙, 앞의 글, 7~44쪽.

락과 텍스트 이면을 읽는 상상력과 비판적 성찰성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수용자의 상상력과 해석력을 적극적으로 견인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자료 구축이 인터넷을 매개하는 것이라면, 수용자가 클릭 행위를 통해 동일한 내용을 경험하는 기록-확정적 디지털화를 선회하는 방식도 모색되어야 한다. 예컨대, '위키피디아'처럼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막대한 정보가 수합되고 수정되며 성찰적으로 활용되는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액체 형식'의 구성을 제안할 수 있다. 이때 위키피디아의 정보집합성처럼, 자료의 풍부함과 정보의 정확성을 데이터 속성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수용 방식의 다양성과 창의적 해석력, 풍부한 상상력 자체를 겨냥한 프로그래밍을 제안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대중지성과 집단 감성이 공존하는 시대의 온라인 미디어로서, 집합 상상과 복합 창의성을 지향하는 웹사이트 구축이 필요하다.

여성문학사의 디지털 온라인 구축은 행위성에 대한 상상을 촉발하고 그것을 수집하여 유의미한 반응을 현실화하는 변혁과 창의 생산의 매개가 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과거의 가장 정확한 재현, 소환의 '불가능성'을 전제로 삼고, 그것을 초월하고 뛰어넘어, 현재와 과거 자체를 재인식하는 성찰성의 매개로 삼을 필요가 있다.

네트워킹은 단지 현재와 과거라는 시차적 간극을 갖는 두 개의 점, 또는 몇 개의 점을 '연결'시키는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연결하면서 변형되고 생성되는 창의 생산적 과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여성문학과 문화에 대한 자료 수집과 데이터베이스화를 설계할 경우, 그 목적은 수용자로 하여금 조선시대 여성과 그 삶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해석과 상상, 비판과 성찰의 경험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반응 자체를 광범위하게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안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만부가 쓴 현감 이연정의 여동생 열녀 이씨의 전(「孝子烈婦忠奴列傳」)에는 생전에 남편과 금슬이 좋았던 이씨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다. 이씨의 남편은 평소에 아내에게 같은 날에 죽자고 말하곤 했는데, 아들이 세 살이 되던 해에 병에 걸려 위독해지게 되자, 지금 나를 따르지 말고, 아이가 열 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따라와도 된다고 유언했다. 아내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다. 사람들은 자결을 준비하지 않고 장례를 후히 치리는 모습에 의아해 했다. 아이가 9살이 되던 해, 이씨는 어머니에게 남편과의 약속을 말하고, 효와 남편에 대한 의(따라 죽기로 약속한 것)를 모두 지킬 수 없다며 자결의 뜻을 표했다. 이씨는 곡기를 끊은 지 12일 만에 사망했다. 이에 대해 이만부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㉛ "무릇 남편을 잃은 여인이라면 누군들 따라 죽으려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 여인이 바로 죽는 것은 무너지는 절통한 심정으로 순식간에 죽음을 결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사람의 마음 또한 조금은 느슨해지게 된다. 그런데도 기한이 되자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평소에 했던 말을 저버리지 않았으니 그 의리가 더욱 지극하며, 그 일은 더욱 어려운 것이었다. 아아! 자식을 기르는 7년 동안 어찌 하루라도 죽음을 잊은 적이 있겠는가!(凡女子喪夫者, 孰不欲死從. 然其始死也, 崩隕慟絶, 決死於須臾者有之. 若時移歲去, 人情亦幾少弛矣. 猶至期不復粒, 以不負平生之言, 其義尤至, 其事尤難. 噫! 養子七年之間, 何嘗一日忘死哉!)" (이만부, 「孝子烈婦忠奴列傳」『息山集』 7:216)

인용문은 고 이씨의 생애에 대한 이만부의 반응이다. 현대의 독자(수용자)도 이만부의 생각에 동의할 수 있지만, 망자 이씨의 처신과 이를 대하는 이만부의 태도에 대해 다양한 생각과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은 글쓰기 대상과 필자에 대한 감각일 뿐만 아니라 역사와 현대성 자체에 대한 감각일 수도 있다. 웹사이트가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생각은 번역자, 연구자, 교수자를 '매개'해 조율되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수용자가 직접 데이터와 접속할 경우, 이에 대한 다양한 반응 자체가 시대와 역사, 당대를 읽는 비판성, 성찰성에 관한 2차 데이터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다른 예를 들어 보자.

㉜ 매일 새벽에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 빗고 바느질 도구를 챙겨 시어머니

곁으로 가셨다. 물러나라 명하지 않으면 감히 물러나지 않고 그대로 해가 지도록 있었으며 저녁 자리를 봐 드린 이후에야 물러나 주무셨다. 대개 하루 중 당신의 방으로 물러나 쉬는 것은 한두 차례 잠깐에 불과할 뿐이었고, 만년에도 그렇게 하셨다. 젊었을 때 시어머니 옆에서 잠을 자며 밤낮으로 곁을 떠나지 않은 것이 몇 년이었고, 한겨울과 무더위에는 그 노고 또한 심하였다. 그러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엄격하게 삼가며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았고, 말이나 기색으로도 조금도 드러내지 않으니, 이를 본 집안 어른 중에 다투어 칭찬하지 않는 분이 없었다(每日平明而起, 盥櫛持針具詣皇姑側. 不命之退不敢退, 直至日暮, 昏定後乃退宿. 大抵一日之間, 退休私室, 不過一二次食頃而已. 晩年亦然. 少時侍寢皇姑, 晝夜不離側者有年, 祈寒盛暑, 勞亦至矣. 而一意嚴謹, 無敢少忽, 亦無幾微見於色辭, 宗黨長老見之者, 無不嘖嘖稱歎.) (임성주[任聖周], 「先妣遺事」『鹿門集』 8:201)

임성주는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항상 시어머니를 공손히 모시고 철저하고 엄격하게 지켜 집안 어른들의 칭찬을 받았다고 서술했다. 전형적인 효부(孝婦)임을 부각시킨 것이다. 이 글에 대해 당대 사람들은 '칭찬'으로 일관했지만, 현대인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36] 이에 대한 빅 데이터를 수집하여 그 자체를 역사 이해에 대한 집단 지성, 문화에 대한 대중 감수성의 자료로 수집하고, 그 자체를 현대문화의 자산으로 구축하는 아이디어 설계를 제안할 수 있다.[37]

과거의 자료를 수집하여 디지털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관점에

36)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연재되었다가 만화로 출간된, '며느리의, 며느리에 의한, 며느리를 위한' 이라는 부제를 단 『며느라기』(수신지, 귤프레스, 2018)는 '며느리'의 관점에서 결혼생활과 시댁과의 관계를 표현한 것으로, 조선시대 문헌자료에 재현된 며느리에 대한 시각과 대조적 차이를 보여준다. 여성문학사 자료가 '창의-생산'적 방식으로 구축된다면, 이와 같이 다차원의 대화와 소통이 가능해지고, 다양한 관점의 성찰 자원이 수집될 수 있을 것이다.

37) 학문과 지식의 유통이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이는 연구자, 연구 결과의 제도화를 매개하지 않는, 일종의 '텍스트-수용자'간의 '직접 소통'을 현실화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수용자는 역사적 자료에 대해 연구자의 논문이나 대학 강의라는 제도적 절차나 매개를 거치지 않고, 웹사이트를 통해 텍스트를 클릭하고 반응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과 느낌을 조건(연령, 젠더, 국적 등)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경험 주체의 자기 이해와 비교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이점을 갖는다. 기술적으로는 디지털 웹사이트의 설계 과정에 연구 논저와 관련 강의를 링크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서 과거를 이해하고 독해하는 해석학적 방법과 상상력, 그를 통해 역사와 현재, 대상과 주체를 성찰하는 반응 자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시대정신, 집단 감성, 역사이해에 대한 대중 지성의 역량 자체를 축적하는 소통적 데이터베이스를 '창의-생산'의 관점에서 제안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5. 젠더와 트랜스-히스토리: 시공간을 연결하며 생성하는 사이버 공간의 문화생산성

사이버 공간에 여성문학/문화(사)의 지도를 설계할 때, 기존의 장르, 젠더, 문자, 신분 경계를 고려하고 참조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가령 그것을 '장르적'으로 구분 짓는 것은 후대의 상상력을 전시대의 '역사/문화적 조건'에 다시 고정시키는, 과거-반복, 정보-확정의 디지털 재현에 불과하다. 디지털 공간은 창의적 사유, 해석적 의견을 수집하고 그것을 통해 현실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소통적 자원의 보고가 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기록-재현을 넘어선 역사적 상상력의 창출, 소통적 대화를 견인하는 창의 생산적 공간으로서 디지털 여성문화지리의 설계를 위한 전제, 조건, 매개,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적 관점에서 고전문학 자료를 대상으로 여성문화지리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문자 기록에 한정해서는 안 되며, 문자로 기록된 텍스트를 활용할 때에도 기록의 조건과 전제, 그 안에 내포된 구술성, 번역, 여성 커뮤니티에 대한 인식, 신분과 젠더를 넘어서는 경계 이월성의 모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여성에 '관한' 남성 기록의 문자, 젠더, 신분 요소를 선회하여, 문자기록성의 특성으로서 '주체-대상'에 대한 역동성의 인식, 여성의 구술성과 행위성, 신분 차이를 넘어서는 여성적 커뮤니티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자로 기록된 자료의 한계성은 자연스럽게 '비-문자'적 문화사 경험의

(불)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문자 기록 자체가 상층-남성의 기준이 작동한 '결과'이기 때문에, 기록된 자료를 활용하는 선에서 여성문화사 구축을 기획할 경우, 그 자체로 상층-남성의 기준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대해 이 글은 텍스트의 성립 조건으로서의 문자의 복합성(복합문자체계)이라는 개념을 제안했고, 그 안에 내포된 담론을 활용할 경우 화행적 조건과 담화 수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이와 동시에 텍스트 내부에 재현된 다양한 감성 요소에 대한 역사적, 서사적, 문화적, 수사적 차원의 고려와 수집이 필요하다.

조선시대에 여성이 글쓰기나 독서를 했다는 것은 '내세울 만한 사실'로 간주되지 않았으므로, 수사적으로 이를 드러내는 방식은 대개 간접화되거나 생략되었다. 때로는 모순적인 이중화법을 활용함으로써 인식적인 모호성을 겨냥하기도 했다. 여성 스스로는 자신의 지적 소양과 교양 능력을 혼자만의 세계로 감추기도 했으며, 사후에 발견된 유서를 통해 가족들이 여성의 문식성을 알아차리기도 했다. 이러한 정황은 여성 지식/교양의 재현 방식이 당대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복잡하게 겹쳐지고 가려져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 여성문학(사)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공간 생성을 위해 과거와 현재의 소통적이고 성찰적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창의-생산'의 개념을 제안했다. 이때 공간 설계에 작동하는 전제와 조건을 실제의 문헌 자료를 통해 논증하고, 이에 근거해 실험적 아이디어를 일종의 방법으로 제안했다. 이것을 웹상에서 실제로 구현하거나 그 타당도를 논증하는 것은 현 단계의 인문학적 작업은 아니다.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구현가능한 규모와 단계의 아이디어를 제출하려는 현실 논리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현 단계 인문학이 해야 할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그 현실 가능성을 타진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논의는 여성문화지리에 대한 설계도가 제출된 이후에 감당해야 할 영역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글은 여성문학(사)의 '역사/문학' 공간 생성을 위해 필

요한, 문자 그대로의 ‘설계’(idea design)로서의 의미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되었다.

참고문헌

1. 자료

황수연 외 역,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1~8권, 보고사, 2010.

한국고전종합 DB사이트(http://db.itkc.or.kr/)

2. 단행본

수신지, 『머느라기』, 큘프레스, 2018, 1~469쪽.

유몽인, 신익철・이형대・조융희・노영미 역, 『어우야담』, 돌베개, 2006, 1~859쪽.

Bruno Latour, 이세진 역, 『부뤼노 라투르의 과학인문학 편지』, 사월의책, 2012, 1~264쪽.

Choe, Key-sook, *Classic Korean Tales with Commentaries,* Hollym, translated by Lee Sun-hee, Allison Blodgett and Ko Yu-jin, 2018, pp.1~238.

Mike Crang, Nigel Thrift, 최병두 역, 『공간적 사유』, 에코리브르, 2013, 1~648쪽

Roland Barthes, 『신화론』, 정현 역, 현대미학사, 1995, 1~246쪽.

3. 논문

김선현, 「<숙영낭자전>에 나타난 여성 해방 공간, 옥연동」, 『고전문학과 교육』 21,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1, 281~308쪽.

김문희,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의 공간 묘사와 공간 인식」, 『한국어문학연구』 62, 동악어문학회, 2014, 187~225쪽.

김 현, 「디지털 인문학과 고문헌 자료 연구」, 『열상고전연구』 50, 열상고전연구회, 2016, 13~38쪽.

김현화, 「홍계월전의 여성영웅 공간 양상과 문학적 의미, 『한민족어문학』 70, 한민족어문학회, 2015, 235~266쪽.

김경숙, 「여성 한시문에 나타난 '공간'으로서의 '집' 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6, 167~195쪽.

류경자, 「남해군 전승민요의 현장론적 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2010, 239~246쪽.

유목화, 「남원 춘향제 연구」, 전남대 박사논문, 2012, 1~206쪽.

이정수, 「조선후기 蘆尙樞家 奴婢의 역할과 저항」, 『지역과 역사』 34호, 부경역사연구소, 2014, 167~211쪽.

이지영, 「<운영전> 창작의 문학적 배경과 연원」, 『국문학연구』 26, 서울대 국문학회, 2012, 133~164쪽.

전경목, 「양반가에서의 노비 역할: 전라도 부안의 우반동김씨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반문화』 15-1, 2012, 217~264쪽.

조혜란, 「17세기 조선의 규방 현실에 대한 보고」, 『한국고전연구』 9, 한국고전연구학회, 2003, 353~379쪽.

지연숙, 「고전소설 공간의 상호텍스트성: 황릉묘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5,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1, 141~165쪽.

최기숙, 「17세기 고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유랑과 축출, 그리고 귀환의 서사」, 『고전문학연구』 38, 한국고전문학회, 2010, 37~74쪽.

_____, 「18세기 여성의 생애사 기록을 통해 본 빈곤의 감성 통제와 여성의 삶」, 『여성문학연구』 32, 한국여성문학학회, 2014, 7~44쪽.

_____, 「18세기 여성 대상 애제문과 비지문을 통해 본 한문의 '문자적 • 구술적' 포용성: '한문/언문'과 '말/글'의 중첩과 포용의 맥락」, 『고전문학연구』 48, 한국고전문학회, 2015, 259~289쪽.

_____, 「조선후기 여성의 '문화/문학'적 실천(讀 · 書 · 行)을 통한 한국 '고전/문학' 연구의 재성찰」, 『국어국문학』 176, 국어국문학회, 2016,

115~149쪽.
_____, 「지속가능한 '감성-성찰' 자원 구축을 위한 한국 '고전/전통' 자원의 재맥락화」, 『동방학지』 175,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6, 25~55쪽.
_____, 「여종과 유모: 17~19세기 사대부의 기록으로부터- '일상·노동·관계'와 윤리 재성찰을 위하여」, 『국어국문학』 181, 국어국문학회, 2017, 105~162쪽.
탁원정, 「가정소설에 나타난 '집' 연구」, 『한국고전연구』 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407~450쪽.

Abstract

A Research on the Historical/Cultural Space Creation for Women's literary(History) and Design for Digitalized 'Creative-Production'

- Prerequisites, Conditions, and Methods for Designing Imagined and Cultural Creation

Choe, Key-Sook

This paper investigated the possibility of cultural space design as a mode of 'creative-production' at a digital dimension through arguing the significance of both the representations of cultural history through non-scripted affective elements and the female literature considering experience, actions, practice, and orality. This work starts from the viewpoint that reconstructing the cultural geography of women in the Joseon period in digital level should go beyond digitalization as a fixed method of reproducing the textual data. It also presents the view that audiences in a digitalized space can have opportunities to understand the original literary data in a new form by experiencing other audiences' viewpoints on this content as a human resource. This paper examined the possibility of women's practicality, value, literary life and ethical and affective practice as a way of analyzing women's cultural/literary history, which are lettered in the texts oral transmission the Joseon period.

The life history of the women the Joseon era, which are written in scripts are mediated through male, intellectual, scripts (hanmun, a Chinese character), through the a concept of institutional literature. Since the contents of investigations and reflections on subjective utterances and representations of women are either

erased or concealed, the task of restoring such contents is similar to the work of 'transparently existing' shadow reading.

In order to understand the female culture that is not permitted to literary life formally in the Joseon era and to restore their value and reality to the digital space, we should consider the women's way of study like 'seeing a lot and memorizing well', unlike the masculine way of 'reading a lot and memorizing well'. This could include maidens and nannies who occupied the lower class of the status system. In addition, it should be designed in a 'creative-productive' way that reflects and critically understands history and culture through the data, beyond the way of expanding and reproducing the male-centered gaze that looks at women.

This paper explores the limitations of modern Korean audience in the way of existence of women's culture in the Joseon era, expanding on their introspective, critical and imaginative understanding of the limitations and operating principles of historically existing reality, and suggested the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human engineering implementation of digital design that can be done.

Key words : women's literature, history of women's literature, digital space, creative-productivity, imaginary topology, gender, culture, intelligence, affect, database, humanities-engineering

■ 본 논문은 2018년 3월 24일에 접수되어 2018년 3월 26일부터 4월 1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7년 4월 2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